

에로스, 구원을 위한 유혹

김 지 연*

국문초록

현대인은 자기(Self) 혹은 신성과의 단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단절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은 비단 인간만이 아닐 것이다. 신 역시 자신을 탄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궁인 인간의식과의 단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인간과 신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욕망한다. 따라서 신과 인간은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서로를 유혹해야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에로스는 특유의 초월적 본질로 인해 현대인으로 하여금 종교를 통하지 않고도 자기와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얼마 남지 않은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개성화 과정의 한 방법으로써의 에로스 및 에로티시즘과 더불어 이런 형태의 개성화 과정에 적합한 정신의 자질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욕망과 신성의 속성을 동시에 가진 에로스는 그 자신의 정수인 생명력과 불멸의 감정을 엑스터시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이 신은 그 자신을 육화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인간을 유혹하는 것 같다. 유혹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사랑의 체험에 있어 자기를 향해 자아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개성화는 자기를 향한 자아의 철저한 포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로스가 가진 유혹의 목적은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인간을 무의식 상태에서 깨움으로써 사랑 속에서 신성을 추구하도록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에로스의 유혹을“신의 에로티시즘”으로 명명하였다.

에로스 신의 유혹의 결과로서 자기를 체험한 개인이 개성화 과정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버림받음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상실

접수일 : 2018년 4월 30일 / 심사완료 : 2018년 6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20일

*융학과 분석가, 임상심리전문가, 김지연 융심리분석연구소 소장

된 신을 유혹하고 육화해야하는 엄중한 과제 앞에서 자신 속에 무엇이 결핍되었는지에 대한 통렬한 자각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전통적인 개념으로써의 멜랑콜리아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 이러한 개성화과정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랑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으며 생명의 덧없음과 무한성의 결핍에 대한 예리한 자각으로 인해 쉽게 고통 받는다. 결핍을 자각한 자만이 결핍된 대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왜 멜랑콜리아를 가진 개인이 신성에 속하는 존재의 영속성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운명에 처해지는지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에로티시즘에 내재한 신의 계획을 놓칠 때 우리는 결코 성을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정신에서 본능과 영성이 왜 그토록 가까우니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의 신은 강렬한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영적 위기를 도발함으로써 우리의 미지근한 영혼을 구원하러 온다. 에로스는 우리를 파괴하러 온 궁극의 구원자인 것이다.

중심 단어 : 개성화 · 에로스 · 멜랑콜리아 · 유혹 · 구원.

들어가는 말

“정신을 통해 육체를 고문했던 예수처럼, 이 시대의 신은 육체를 통해 정신을 고문할 것이다.”¹⁾

현대인에게 에로스 혹은 에로티시즘은 그 특이한 초월적 본질로 인해 종교를 통하지 않고 신성을 체험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육체를 통해 신성 혹은 영원성에 대한 희미한 본능을 일깨운다. 따라서 그것의 종교적인 요소를 놓친다면 우리는 에로스의 본질을 결코 파악할 수 없을지 모른다.

에로스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주제로 그 모든 특질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개성화라는, 신의 부름이자 신을 구원하는 도구으로써의 에로스이다. 서로를 구원한다는 관점에서 에로스를 통한

1) Jung CG(2009) : *The Red Book-A Readers' Edition*. English Translation by Mark Kyburz, John Peck, and Sonu Shamdasani, W.W. Norton & Company, p354.

개성화 과정은 신과 인간이 서로를 유혹하는 과정으로 부를 수 있겠다. 에로스 에 대한 용의 정의는 현상의 광범위함과 깊이로 인해 모호한 편이다. “용의 가정에서 에로스는 정신적 관계성의 원리로 섹스와 동의어로 여겨져서는 안 되나 섹스와 분리시킬 수도 없다. 에로스는 정신적 본질을 이루는 인간적, 심미적, 영적 활동에 에로스 그 자체로서 혹은 섹스의 한 측면으로서 참여한다.”²⁾ 용어의 다른 인용 출처는 에로티시즘의 본질에 대한 바타이유의 사상이다: “에로티시즘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고립된 불연속성의 감정을 심오한 연속성의 감정으로 대체해 준다는데 있다.”³⁾ 나는 섹슈얼리티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때 ‘에로티시즘’을, 성이 포함된 사랑, 여성적 원리, 관계성의 원리, 사랑의 신과 같이 더 넓은 범위가 고려돼야 할 경우 ‘에로스’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도발적인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파솔리니는 오직 에로티시즘만이 낯은 기존 구조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통찰을 영화 테오레마를 통해 담았다. 이 신념은 적어도 심리적인 면에서는 진실일 수 있다. 왜냐면 에로스 없이는 어떤 심오한 변환도 우리의 정신 안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성화 과정 역시 그러한 낯은 내적 체계를 해체하지 않거나 낯은 삶의 방식이나 낯은 자아의 파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질병과 에로티시즘이 이러한 형태의 내적 붕괴와 영혼의 재탄생을 야기하는 극도로 강력한 요인들로서 종종 작용하는데, 모든 질병들 중 멜랑콜리아는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변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에로스 혹은 에로티시즘을 개성화의 한 방식으로 볼 때, 다음의 질문들이 따라올 것이다 : 누가 필연적으로 이 형태의 개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이다.

변환은 자기(Self)가 주도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정신의 잠재적 자질들, 즉 자기의 한 측면인 에로스가 욕망하고 개성화의 도구로서의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데 적합한 개인의 자질들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자질들은 선천적일수도 후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멜랑콜

2) Samuel A, Shorter B, Plaut F(2015) : *A Critical Dictionary of Jungian Analysis*. Loc1308. Kindle Edition.

3) Bataille G(1986) : *Eroticism : Death & Sensuality* : English Translation by Mary Dalwood, City Lights Books, p15.

리아가 에로티시즘을 위한 근원적인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유혹받을 수 있는 역량’의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에로티시즘이 요구하는 중요한 자질들 중 하나는 희생의 역량인 듯이 보인다. 우리는 자아의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에로스와 자기에 헌신하는 의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신성혼의 심리학적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이를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자질은 세계관과 연관이 되는데, 이 세계관은 에로티시즘을 통한 개성화를 완성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우리는 노자의 ‘자연불인’의 관점을 통해 어떻게 개인의 세계관이 에로티시즘과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에로티시즘은 죽음에 준하는 열락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급진적인 욕망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본질로 인해 이것은 대담한 자들, 즉 삶을 탕진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 심연을 꿰뚫을 수 있고 또한 광기를 감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의 운명으로 보인다. 에로스를 통한 개성화는 모두에게 열린 길은 아니며 내적 평화를 기꺼이 파괴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길인 것 같다. 열정은 고통의 능력이며 대체적으로 멜랑콜리아적 기질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기도 하다. 열정이 없이는 성애에 있어 맹렬하게 사랑의 대상과 융합하려는 식인풍습의 고독한 열망에 결코 압도당할 수 없으며,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미사의 의미를 정서적으로 체험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정의 기질은 어쩌면 에로스를 통한 개성화에 있어 본질적인 요건일지 모른다. 열정은 육체적인 공감을 정감과 영성의 범위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 이유는 열정에 압도된 연인들만이 그들의 자아를 초월하여 그들의 에고이즘의 너머에 가닿을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열정은 오랫동안 오해받고 평가절하 되었으며, 또 주로 자기애적인 미성숙함으로만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나는 이 중요한 인간의 자질을 탐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에로스는 병리적인 자기애적 성애로 축소되거나 단순히 coniunctio(결합)의 심리적인 기능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에로스는 본능의 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에로티시즘에서 추구되는 것은 우로보로스적인 낙원이라는 통념이 지배하고 있다. 이 낙원은 자기의 한 표현인 모성원형과의 원초적인 공생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성적 체험이 결핍된 개인들은 신경증적인 방식으로 에로티시즘을 추구하기 쉬우며 거의 전적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 투사에 근거해 사랑한다고 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에로티시즘에 있는 자기의 다른 측면들이 이들 담론에서는 제외되어있는 것 같다. 한 예로, 자기의 한 표현으로서의 에로티시즘은 자기애적 사랑이나 중용의 미덕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일지 모르며, 본질적으로 극단적인 인간성의 영역에 속하기에 비참과 불가해함의 특질을 인격에 요구한다. 강렬한 감정과 정서적 동요를 허락하지 않는 고요한 명상은 에로티시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에로티시즘과 고대의 종교의례는 혼돈과 격렬함의 특징들로 인해 인간성의 극단의 영역에 속한다. 종교의례와 에로티시즘간의 상징적 유비관계는 많은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 왔다. 폭력적인 고대의 종교의례에 참석하고 있는 한 인간을 상상해보자 : 그는 제례를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장엄한 의례에 압도된다. 죽어가는 동물의 눈을 통해 그는 신의 거주지이자 심오한 영속성이 존재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이 세계에서 영원은 무상함이라는 실존적 공포를 끝장낸다. 신성이 그를 관통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물살해의 순간은 열락과 전율의 순간으로 변환한다. 이 세계는 죽음과 삶, 광기와 신성한 질서, 성과 속이 폭발적으로 혼합된 세계이다. 이 순간은 존재의 미지근한 상태를 모독하고 안정에 대한 애착을 비웃으며 오직 마법만이 통하는 미지의 세계로 이끈다. 자기의 이러한 측면들은 불멸에 대한 감정적 체험을 제공한다. 심오한 에로티시즘의 체험은 이러한 종교적 체험과 거의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원초적인 모성적 공생의 추구라는 것으로 어떻게 에로티시즘에 내재하는 이러한 혼돈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을까?

에로티시즘의 주체는 신성으로서의 에로스 혹은 자기(Self)이다. 따라서 사랑의 황홀경에 사로잡힐 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신 자체이다. 사랑의 경험이 강렬해지고 깊어져 그 체험이 사랑하는 자를 지하세계로 데려갈 때 그는 에로티시즘을 통한 개성화라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개성화 과정의 한 형태인, 에로티시즘을 통한 신의 유혹과 그 심리적 결과에 대한 담론이다. 나는 또한 사랑하는 자의 내적 폭발의 변화양상을 드러내 보이도록 할 것이다. 이 내면의 전복은 성본능에 뿌리를 둔 심오한 라포를 통해 일어나는데 이것이 연인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존재의 근원까지 닿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정신의 극단적인 수준에서의 대화를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겠

다. 사랑의 대상인 대타자(Thou)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에로티시즘의 밖에서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그것의 강렬함이 자기(Self) 체험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한번이라도 이러한 누미노즘을 체험한 자는 영원히 그것에 사로잡히며 끊임없이 이 상태를 동경한다.

많은 현대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특정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모호한 불행감과 피로감 혹은 삶의 무의미함을 이유로 치료실을 찾는다. 고통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삶을 전복시킬 수준의 고통의 임계까지 도달하는 데는 실패한 채다. 이들의 진정한 불운은 어쩌면 완전히 불행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없다는데 있을 지도 모른다. 그들 정신의 표면에 난 고통의 균열들은 너무 미약하여 빛이 침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의 내면은 대체로 '미지근함'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감의 무능으로 인해 이들은 열정적인 연인이었던 경험 또한 거의 없다. 에로스가 일격을 가하기 전까지 이들은 대타자에게 자신을 던지지 못한 채 망설인다.

에로스는 이 미지근한 물에서 그들을 꺼내어 끓는 물속으로 집어넣는다. 이 신성한 힘의 전달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한, 열정의 얼굴을 가진 연인으로 사랑하는 자의 앞에 나타난다. 이 사랑의 대상은 심오한 영원의 느낌을 선사하며 그를 백일몽에 젖게 만든다. 그러나 버림받음은 사랑하는 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대부분의 사랑이 이별이나 소멸의 형태로 죽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재하는 에로스는 사랑하는 자를 멜랑콜리아의 연옥으로 밀어 넣는다. 그들은 연인의 영원한 부재를 통해 육체의 신성함을 맹렬하게 체험하고 유일한 실재, 즉 부재의 유혹이라는 정서적 현실을 공포 속에서 직면한다.

에로스의 체험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체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은 상징적으로는 무한과의 결별을 의미할 수 있겠다. 무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자기로부터의 버림받음은 이전에는 결코 겪어보지 못했을 전대미문의 불행, 존재의 유한함이라는 실존적 공포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 체험의 핵심은 무한자로부터의 버림받음을 통해 그가 유한자로서의 자각과 이에 따른 실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변환되었다는 데 있다. 사랑하는 자의 내면에 지퍼진 열정은 지금까지의 모든 평화를 끝장내며 영원에 대한 갈망으로 그를 채운다.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원에 대한 깊은 동경을 일으키는 멜랑콜리아는 에로티시즘을 통한 개성과 과정에 동반자가 된다. 영혼의 연금술적인 변환을 위해

서는 니그레도(negredo)가 본질적인 요소이며, 인간은 결핍이나 상실에 대한 자각 없이는 결코 그 결핍된 것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에 대한 갈망은 에로티시즘 안에만 존재할 뿐 섹슈얼리티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상함이라는 실존적 고뇌로 인한 괴로움을 겪은 적이 없는 개인에게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영원을 추구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체험케 해 줄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그의 사랑은 에로티시즘을 통한 자기의 체험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신성을 추구하도록 내모는 통렬한 정감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남아있겠지만, 여전히 사랑을 통해 설렘과 쾌락 그리고 충만을 경험할 수도 또한 성적으로 열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은 사랑하는 자임에도 여전히 에로티시즘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남게 된다. 개성화의 여정으로써의 에로스애의 입문은 그의 운명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다른 개성화의 길들을 그를 위해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다시 버림받음의 고통에 사로잡힌 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는 그가 상실한 대상 너머의 신-에로스를 유혹하려는 강렬한 충동에 내몰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그가 유혹하고자 하는 대상은 구원을 기다리는 에로스-신 그 자체이다. 이 지점에서 유혹은 인간과 신 사이의 상호간의 과업이 된다. 그가 자신의 영혼 안에 그 신성한 연인을 수태할 때까지 고통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눈을 돌리지도 못한 채 자신의 정감의 극단을 지켜봐야 한다. 용이 말했듯, “예수가 인류에게 피의 희생을 요구했듯, 새로워진 신 역시 피를 아끼려 하지 않을 것”⁴⁾이기 때문이다.

이 버림받은 자가 행하는 유혹은 신의 부재를 납치하려는 시도이자 신성과의 조우로 생겨난 내적인 허무를 끝내려는 분투이다. 그는 이 공허가 이전에 경험한 미지근한 허무와 다르다는 것을 안다. 이 공허는 이전의 낡은 에고이즘의 무덤이며 비-인간적인 힘이 그를 장악하면서 창조된 것이다. 그러한 자아의 죽음이나 재난은 신의 작업 영역이므로, 에로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을 살해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때 엑스타시로 채워졌던 그의 내적 공허는 재난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는 이 고통의 의미를 자문해야만 한다. 시련은 오로지 옳은 질문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만 끝날 수 있다. 그는 애초에

4) Jung CG(2009) : 앞의 책, p355.

에로스에 의해 유혹되고 관통당하도록 만든 그 자신의 에로틱한 본능의 힘을 기억에서 떠올릴 것이다. 이제 그는 사랑과 열정의 본질에 대해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를 버린 연인 혹은 사랑의 감정이 돌아온다고 해도, 신성한 에로스에 의해 일깨워진 ‘영원에 대한 굶주림’은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연인과의 포옹 속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체가, 인간의 영혼이 서로 얼마나 조금밖에는 섞일 수 없는지를 당혹과 애상 속에서 깨닫는다. 이에 자아와 물질을 초월하고자 하는 내적 요구가 필연적으로 그의 의식의 전면으로 올라온다.

자신을 버린 에로스 신을 유혹한다는 것은 에로스예의 입문 의례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혼의 상징에는 인간이 신성으로서의 에로스를 유혹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심리학적인 처녀성과 자신의 정감의 극한을 경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유혹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혹의 시도 속에서 사랑하는 자는 그가 열렬하게 집착해온 하나의 육체와 하나의 영혼이라는 것이 마야임을 비로소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야의 베일을 걷어냄으로써 비로소 그는 에로스이자 자기(Self)이기도 한 사랑 그 자체를 발견할 것이다. 인간 연인의 베일 너머에서 드러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아의 완전한 복종을 기다리는, 사랑의 신이자 위대한 창녀이며 궁극의 유혹자인 에로스 그 자체인 것이다. 이 자각과 사랑의 신을 향한 헌신을 통해 그는 신을 구원하며 이 구원의 행동을 통해 그는 신성의 연인이자 새로운 신의 자궁으로 변환한다.

불멸과 소멸의 역설을 본성으로 갖고 있는 영원히 변화하는 달은 에로스의 본질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신성의 역설적 속성을 깨달은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해 온 고정된 영원성의 세계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설이 바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에로스 궁극의 정수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용의 지체에 기대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 “영원한 충만을 창조하길 원하는 자는 영원한 공허를 창조할 것이다.”⁵⁾

5) Jung CG(2009) : 앞의 책, p316.

신의 에로티시즘

1. 신성한 유혹자 : 영화 ‘테오레마’

“그(예수)는 신을 수태하는 자궁인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만 탄생할 수 있다.”⁶⁾

생명과 변영의 신인 에로스는 인간을 통해 살기를 원하며 이에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신을 알고 있다 : 한 번이라도 그의 누미노즘을 경험한 인간은 신의 속성인 영원의 감각을 영원히 갈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테오레마는 내게 충격을 안겨준 영화로 이러한 신의 에로티시즘이 인간의 에로티시즘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며, 개성화를 촉발하는 신비한 유혹자 원형이 어떤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통찰을 준 작품이다.

유혹자 원형은 개성화를 유발하는 많은 원형 중 하나로 신의 에로티시즘과 연관돼 있다. 유혹 당한다는 것은 길을 잃는 것으로, 자아를 행복으로 이끌며 변환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기존의 내적 체계에 대항하는 전복적인 요소가 빠진 유혹은 진정한 유혹이라고 불릴 수는 없을 것이다. 유혹의 전형은 낯은 의식의 태도에 대한 위반과 전복의 요소를 갖는다.

“Seducere”의 라틴어 어원인 “seducere”는 “옆길로 데려가다”를 의미한다. “Se”는 “떨어진 곳”을 “ducer”는 “이끄는 것”을 뜻한다. 유혹의 정신적인 가치는 길을 잃게 만드는데 있으며, 정신의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개인을 이끌어 이전에는 확실하던 것들 모두를 불확실하게 만드는데 있다. 기존의 내적체계는 흔들리고 의식의 낯은 태도는 해체의 위기에 놓인다. 유혹된 자의 일부 정신은 이전까지 그가 거주하던 세계인 실용성과 질서가 지배하는 정신의 영역으로부터 뜯겨져 나온다. 구체적인 현실의 피부는 벗겨지고 대신 비아(non-ego)의 영역으로부터 나온 이미지와 환상이 의식에 스며든다. 이를 통해 그의 의식에 대타자(Thou)의 도래가 임박한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명함의 원리에 근거한 세계, 즉 사실과 이유, 효율성과 실용성이 지배하는 세계로 모호함과 매혹이 부재하는 세계이다. 어쩌면 베일과 달빛만이 인격에 본질적인 변화를 허락할 지도 모른다. 결점 없

6) Jung CG(2009): 앞의 책, p353.

는 매끄러움만을 추구하는 세계는 긍정성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이 세계는 그들과 어둠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인간 정신을 단순한 차원으로 끌어내린다. 긍정성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삶의 모든 형태의 부정성이 제거되는데, 이 조건하의 삶에서 개인은 상처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여는데 있어 전적으로 무능하다. 왜냐하면 상처란 모든 수단을 다해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에 속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처야말로 무의식이라는 비옥한 어둠인 정신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일 수 있다. 부정성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지옥에서 개인을 구할 수 있다. 정신의 어두운 측면은 우리의 일방적인 의식성을 핵심으로부터 뒤흔든다. 부정성이 포함된 세계에서 생명의 그들은 환영을 받는다. 내적 균열을 예고하는 어두운 매력의 세계, 내적 혼란을 촉발하는 유혹의 세계가 정상과 건전이라는 가치만이 지배하는 진정한 광기의 삶을 대신하는 것이다.

테오레마는 밀라노의 한 부르주아 가족 모두를 유혹하고 떠나버리는, 신과 닮은 수수께끼 같은 방문객을 그린다. 이 가족은 긍정성의 가치만이 지배하는 세계, 즉 선동적인 신도 없고, 위협적인 사랑도 없으며, 고통조차 충분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신경증은 최소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데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경증을 앓을 수 있는 정신의 지점까지는 가본 적이 없는 개인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내적 불모지를 희미하게나마 의식은 하지만 불행에 대한 무능 때문에 그들은 신경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육화된 에로스인 이 방문객이 그들 앞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영화 속 방문객은 안전이나 만족 따위는 안중에 없다. 그는 에로티시즘을 통해 가족 모두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미 체계를 파괴한다. 그가 이들에게 주는 것은 오로지 전율과 광기이다. 그는 내적 붕괴라는 드라마를 위안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세계로 가지고 들어온다. 그의 본질에 내재한 성스러운 잔인함은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울려 퍼진다. : “내가 지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 나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⁷⁾

다이몬을 가진 이 유혹자 원형 이미지는 성경과 예술작품 속에서 발견된다.

7)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2005) : The International Bible Society, Matthew 10 : 34.

창세기에 신의 아들들은 인간 처녀들을 유혹하여 거인들을 낳았으며(창세기 6:2),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유혹자인 메피스토는 독립성과 함께 모든 위계와 지성에서 해방된 지배를 즐기는 정신기능의 악마적인 면을 상징한다.⁸⁾ 또한 이러한 류의 신의 이미지는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옴의 꿈’이라는 그림에서 사탄과도 같이 갈라진 발굽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며,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에서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누미노즘을 가진 천사의 이미지로도 그려진다. 샌포드는 저서에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Self)의 양가적인 속성을 묘사한다. : “누군가 이곳에 있었다. 틀림없이 신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악마였을 수도. 누가 확신에 차 말할 수 있으랴, 신과 악마가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바꾼다. 신이 때로는 어둠 그 자체가 되거나 혹은 악마가 빛을 선사하기에 인간의 마음은 혼란에 빠진다.”⁹⁾

에로티시즘은 성과 영성의 대극합일을 의미하며, 이 합일의 결과로 개성화가 촉발된다. 옴이 말한 육체와 정신의 같등은 성과 영성이라는, 정신의 대극간의 같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에로티시즘은 연금술에서 태양과 달의 화학적 결혼이 거인이라는, 라피스에 해당하는, 전체성의 상징을 낳는 것과 등가의 관계를 갖는다.

신성한 유혹자는 인간적이지 않다. 이러한 초연함은 자연과 무의식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적인 면이기도 하다. 옴은 무의식이 자연의 일부분이며 이에 자연처럼 자기 충족적이고 인간의 고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¹⁰⁾ 신성한 방문객의 이러한 원형적 특성은 자기의 특성으로서 이는 ‘자연불인’이라는 자연에 대한 노자의 사상에서도 발견된다(도덕경 5).

에로스는 무의미를 제압하지만, 의식은 이를 전율과 황홀경만이 아니라 상처와 재앙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신성으로서의 에로스는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결합의 산물로서 강렬한 두 신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로스는 결코 존재의 미지근한 상태인 안정이나 위안과 함께 할 수 없다. 예수가 도마복음서에서, “찾는 자가 자신이 찾는 것을 받

8) Jung CG(1968) : *Psychology and Alchemy, Collected Works, Volume 12, 2nd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67-69.

9) Sanford JA(1982) : *Evil : The Shadow Side of Reality*.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0) Jung CG(1969) : *CW 7,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15.

견할 때까지는 찾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라 ; 발견하면 혼란에 빠질 것이다.”¹¹⁾ 라고 하듯, 마찬가지로 사랑을 구하는 자는 사랑이 행복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알고 길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길을 잃는 것은-유혹의 어원이 가리키는 것처럼-우리 자신을 찾는 것의 전제조건이다. 영화에서도 신성한 방문객의 도착과 함께 이들 가족은 혼란으로 던져지며 점차적으로 생명과 삶의 의미에 대한 자신들의 굶주림을 자각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수의 탄식을 떠올리게 한다. ; “나는 어느 누구도 목마른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 그리하여 나의 영혼은 사람의 아들들로 고통스러워하노라, 그들은 마음의 눈이 멀어 자신이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¹²⁾ 테오레마의 가족들 역시 마치 예수가 접한 인류처럼, 대타자를 향해 자신을 던질만한 사랑의 능력도, 고통의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사랑과 고통의 무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방문객이 요구한 것은 자아 희생이다. 그는 에로스의 영역으로 그들을 납치함으로써 그들이 이전 상태 즉, 자아의 희생이 없는 나르시시즘의 상태로 돌아가는 퇴로를 잘라버렸다. 이제 우리는 그의 유혹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혹은 에로스를 통한 개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아의 파괴자이자 구원자인 신성한 대타자에 대한 자아의 완전한 복종과 이를 통한 정신의 변환이다.

2. 신성화의 고문

“신성화의 고문을 통해 육체를 정복한 예수처럼, 이 시대의 신은 신성화의 고문을 통해 정신을 정복할 것이다.”¹³⁾

자기는 종교와 심오한 에로티시즘을 통해 인류를 유혹해왔다. 생명의 황홀경과 죽음의 요소는 이들의 공통된 속성이다. 에로티시즘에 내재한 자기는 인간의 무의미감과 무상성을 황홀경속에서 살해한다. 고대 종교제례의 카니발리즘과 가톨릭 미사는 영원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더불어 인간을 통해 육화를 꿈

11) *The Nag Hammadi Library*. Edited by Robinson, J.M. HarperOne ; Reprint edition, *Gospel of Thomas*, [2], 1990. p126.

12) *The Nag Hammadi Library: Gospel of Thomas*, [28], p130.

13) Jung CG(2009) : 앞의 책, p354.

꾸는 신의 동경을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인간은 이 에로틱한 의식들을 통해 신성과 섞임으로써 신성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전통적인 종교들이 힘을 잃어가고 에로티시즘 역시 만연한 자기애적 성애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신성으로서의 에로스 역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힌 채 인간만큼이나 고통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망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닌 것이다. 에로스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간의 영혼은 신성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대상일 것이며, 이에 인간을 유혹하고자 하는 신의 욕망 역시 맹렬할 수 있다. 갈망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신 역시 인간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엔 이 시대의 에로티시즘에 대한 집착의 이면에는 신과 인간 모두의 이러한 절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절망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 경우 역시 의식이 관건이 된다. 그들은 키에르케고르의 인물들처럼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을 수도 있다.¹⁴⁾ 그러나 포옹의 황홀경 속에 도사린 불멸성을 감정적으로 체험한 자들, 즉 에로티시즘을 통해 자기에 접촉해 본적이 있는 자들만은 자신의 유한성과 죽음의 요소를 전율 속에서 자각한다. 이들이 바로 사랑을 향한 과격한 열망으로 고문당할 운명을 가진, 에로티시즘을 통한 개성화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내적 초상일 것이다.

1) 테오레마

테오레마의 인물들은 육체의 열락을 통해 정신의 고문을 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혹자와의 조우 이전의 그들은 절망을 깨닫지 못한 채로 절망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신비한 방문객과의 조우로 인해 이들은 전대미문의 압도적인 충만감을 체험하고, 버림받음을 통해 충격적인 공허와 마주한다. 이별에 앞서 그들 각자는 방문객에게 그와의 조우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의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백한다. 이 다이몬은 그 자신을 향한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을 이들에게 심어놓고 그들 영혼을 자신으로 가득 채운 채 사라진다. 그리고 예감했던 대로, 그들은 그의 부재로 인해 엄청난 영혼의 굶주림과 갈망에 시달린다. 유혹자는 육체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들의 정신에 남는다. 그는 자신

14) Kierkegaard S(2004) : *The Sickness unto Death*. English Translation by Alastair Han-nay, Penguin Classics, pp73-75.

의 신성한 에로티시즘으로 육체를 통해 그들의 영혼을 고문한다.

2) 맨하탄의 선신

에로스는 강력한 대타자(Thou)인 자기를 향한다. 이 강력한 타자는 '나'의 영역으로 유인해 낼 수 없는 대상이다.¹⁵⁾ 에로스에서 경험되는 대타자 혹은 자기는 아토포스(atopos)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아토포스는 “여기에서 벗어난” 혹은 “그럴 것이라고 기대되는 기준으로 속박되지 않는” 존재를 말한다. 열렬한 사랑의 체험에서 사랑받는 대상은 아토포스적인 존재로 사랑하는 자의 자아의 지배 안으로 끌어들이 수 없는 어떤 대상이다. 자아는 포착되지 않는 아토포스를 향해 무력감과 겸허함을 체험한다. 이런 식으로 아토포스적인 연인은 자아가 지배하는 황무지에서 개인을 구원하여 자기(Self) 가까이로 데려간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기회는 의식적으로 자아를 희생할 수 있는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바하만의 작품 ‘맨하탄의 선신’은¹⁶⁾ 사랑을 통해 과격하게 자아의 초월을 추구한 두 연인의 이야기이다. 주인공 제니퍼와 얀은 육체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려 한다. 이 극은 과연 사랑이 실용성과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에로티시즘 안에 내재한, 죽음의 맛과 삶을 초월하려는 욕망과 같은 극단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부정성이 이에 반하는 긍정성이 지배하는 현실과 겨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두 연인은 대담하게도 영원 속에 자신들의 사랑을 묶어두려 무상성과 실용성으로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를 글자 그대로 도약을 통해 벗어나기로(taking off) 한다. 그러나 이 세계를 대표하는 선신(the Good God)은 사랑이라는 혼돈으로부터 지상의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 위험한 연인들을 살해하기로 한다. 선신은 “세계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위험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¹⁷⁾ 그에게는 오로지 긍정성만이 이 세계를 지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사랑의 광기가 야기한 혼돈으로 붕괴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랑의 도약을 끝까지 감행한 이는 제니퍼 혼자이다. 자신이 합일

15) Han B/김태환 역(2015) : 《에로스의 종말》, 문학과 지성사, p18.

16) Bachmann I/차경아 역(1997) : 《맨하탄의 선신》, 문예출판사.

17) Bachmann I/차경아 역(1997) : 앞의 책, p107.

하려는 대상은 연인을 넘어선, 그를 능가하는 어떤 것을 향해 있음을 그녀는 안다. 그녀가 헌신하는 궁극의 대상은 내면의 에로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호함의 가치를 알고 정감에 헌신하는 삶을 살 줄 아는 여성적인 존재이며, 깊은 여성성, 즉 사랑의 영원성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망칠 수 있는 힘과 광기를 가진 인물이다. 순수한 광기는 무의식으로 가는 문을 열어 자기에게로 이끈다. 융이 말했듯이, “광기는 신성하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은 미친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¹⁸⁾

3) 님포매니아

개성화의 나무가 위와 아래의 두 방향으로 성장하듯, ‘맨하탄의 선신’의 여주인공 제니퍼와 ‘님포매니아’의 여주인공 조는 각각 상승성장과 하강성장을 대표한다. 육체를 벗어나 영원성으로의 도약을 꿈꾸었던 제니퍼와는 달리 님포매니아의 주인공 조는 자신의 육체에 함몰함으로써 영원성을 파고든다. 그녀의 욕망은 외부 대상을 향해 있지 않으며 자신의 육체 속에 이미 존재하는 성적 욕망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성적 욕망은 우리와 함께 탄생하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존재를 드러낸다. 조의 첫 성적 대상은 인간이 아니며 자기성애의 추구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상은 위대한 대타자인 대자연 그 자체로 그려진다. 12세에 그녀가 들뜬에 누워있을 때 아무런 육체적 자극도 없이 내부로부터 첫 오르가즘이 폭발한다. 그녀 내부의 자연과 외부의 자연이 동시적으로 그녀와의 합일을 시도한 것이다. 융은 한 편지에서 신의 현현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일 수 있음을 언급한다. : “신은 즉각 현현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¹⁹⁾ 그녀의 신은 오로지 육체적 감각으로만 현현하였고 이로 인해 평생에 걸친 비극이 시작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와 유사한 고통으로 치료실을 찾는다. 섹스중독은 성적 열망의 의미를 포착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 하나로 그 이유는 “상징화의 부재가 본능 영역의 과부하”²⁰⁾를 불러일

18) Jung CG(2009) : 앞의 책, p150.

19) Jung CG(1975) : *Letters : 1951-1961*, ed. G. Adler, A. Jaffe, and R.F.C. Hul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vol. 2.

20) Jung CG(1966) : *CW 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 edition, p460.

으키기 때문일 수 있다. 조 역시 신성을 자신의 음부로 응결시키고 자폐적인 감각의 세계에서 이것을 추구한다. 그녀는 상징과 의미로서의 신성을 체험할 수 없으며, 대신 그녀의 육체로만 극심하게 응축된 신에 의해 고통 받는다. 육체의 모든 구멍들을 채우려는 자신의 절박함이 영적 공허의 표현임을 그녀는 상징적, 정서적으로 체험하는 데 실패한다. 그녀의 정신은 육체라는 물질에 갇혀 비통한 외로움 속에서 영혼의 밤바다를 헤맨다. 이 고통의 목적은 어쩌면 자명한 것일 수 있다. 개성화를 일으키는 것은 자기이지 자아가 아니므로, 그녀 역시 에로티시즘을 통한 개성화라는 자기의 부름을 어둡게 또 강렬하게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3. 내적 체계의 해체

1) 눈을 통한 수혈

개성화과 과정에 있어 에로스의 유혹이 가져오는 것은 인격의 변환을 위한 낯은 자아의 파괴이다. 에로스가 가진 모든 유혹의 방식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도 응시일 것이다. 응시는 욕망이다 :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응시하며, 더 많이 욕망할수록 더 오래 응시한다. 완전한 인간은 타자를 결코 욕망하지 않는다. 욕망은 자신 안에 결핍을 느끼는 자들의 것이다. 따라서 응시는 자신의 취약함에 대한 일종의 고백이 된다. : “나는 내 자신이 결핍된 존재임을, 너에게 취약한 상태임을, 네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결핍된 부분을 욕망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에로스에서 응시하는 자의 만족은 전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이것을 돌려주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응시하는 주체는 연인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만 한다. 만일 주체의 응시를 통해 응시하는 대상 역시 그 자신의 결핍을 의식화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결핍된 것이 응시하는 자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관계는 상호간의 매혹으로 발현된다. 즉, 자신에게 결핍된 것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갈망하는 것이 욕망과 사랑의 기본적인 역동 중 하나이다. 이때 응시를 통해 이들 두 연인은 각자에게 취약함을 열어 보이고, 이 취약함이라는 영혼의 갈라진 틈을 통해 서로의 영혼으로 침투한다. 따라서 취약함을 자각하고 이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이 가진 에로티시즘의 역량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신성한 광기로 본 플라톤과 같이 고대 철학자 피치노 역시 “사랑의

전염성은 쉽게 발현되며 모든 병 중 가장 심각하다.”고 말하여 “이 병은 감염자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어 타인의 성분으로 변화시킨다. 이를 통해 사랑이라는 질병에 걸린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감염시킨 사람을 향해 끌려간다.”고 주장한다.²¹⁾ 이 관찰은 사랑의 황홀경이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폭력성은 자아의 죽음을 향한다.

어쩌면 눈의 진정한 근원은 육체가 아니라 피일 지도 모른다. 영혼의 창인 눈은 그 또한 영혼과 정감의 상징인 심장과 분리될 수 없으며, 심장의 정수라 일컬을 수 있는 피와도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피치노는 사랑의 본질을 눈을 통한 수혈로 묘사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가 파이드로스를 향한 사랑에 사로잡힌 그리스의 연설가 리시아스에 대해 쓴 부분이다. : “리시아스는 파이드로스를 냅을 잃고 바라본다. 파이드로스는 자신의 눈에서 나온 광선이 리시아스의 눈을 향하게 함으로써 리시아스에게 혼을 전달한다. 파이드로스의 눈빛은 리시아스의 눈빛과 쉽게 하나가 되어 영혼과 영혼이 결합한다. 파이드로스의 심장에서 생겨난 증기는 리시아스의 심장을 찾아 침투하여 리시아스의 심장에서 응고된다. 그리고 이렇듯 응축된 파이드로스의 생명은 다시 파이드로스 자신의 피 속으로 돌아온다. (중략) …파이드로스는 리시아스를 추구하는데 심장이 파이드로스 자신의 피를 리시아스로부터 돌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리시아스가 파이드로스를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담길 수 있는 적절한 그릇을, 자신이 깃들 자리를 요구하는 그의 피의 요청 때문이다.”²²⁾ 눈을 통한 수혈의 결과 사랑하는 자의 자아는 죽는다. 그의 심장이 더 이상 그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죽고 사랑하는 이는 살해자가 된다. 에로스에 동반되는 이토록 맹렬한 파멸은 고대인들에게 핵심적인 것이었다. 플라톤은 이러한 형식의 죽음에 민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육체 안에서 죽고 연인의 육체 안에서 산다.” 여기서 다시 에로스에 동반되는 죽음의 주제가 변주된다. 그러나 이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두 연인은 서로의 심장에서 부활한다. :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너를 사랑하는 사이, 나는 나를 생각하는 네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그리하여 나는 스스로 네 안으로 방기했던 나를

21) Ficino M(1985) : *Commentary on Plato's the Symposium on Love*. English Translation by Sears Jayne, Spring Publications, Inc., p162.

22) Ficino M(1985) : 앞의 책, p161.

되찾는다. 너 역시 그러하듯이.”²³⁾

한편 우리는 대타자의 눈을 거대한 공허로 체험할 수도 있다. 인류의 첫 대타자는 자연이다. 만일 우리 자신을 원시인으로 상상할 수 있다면, 원초적 밤의 순수한 어두움을 아름다움만이 아닌 공포로 체험하는 인간을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동굴 입구로 밀려드는 그 밤의 혼돈을 이해하기 위해 원시인인 우리는 경외와 공포 속에서 그것을 뚫어지게 응시할 것이다. 그러나 눈을 가진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그 공허 역시 거대한 텅 빈 눈으로 우리를 응시할 것이다. 즉, 어두운 공허가 우리 인간을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심연이 대체 우리 안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원시인인 우리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의식을 모두 모아 혼돈을 응시할 것이다. 아마도 그 심연은 우리의 그 작은 의식을 욕망할지 모른다. 왜냐면 그토록 작은 인간의 의식 없이는 무의식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은 아프리카 여행당시 인간의 안과 밖의 자연이 얼마나 인간의 의식을 욕망하는지를 체험하였다. 자연은 인간이 그것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비-존재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⁴⁾ 무의식은 의식의 눈을 통하지 않고는 비-존재로 머문다. 무의식의 피가 의식을 매혹하고, 의식의 피가 무의식을 매혹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색채가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눈의 수혈은 시각의 장에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피를 먹이는 행위이다. 이는 가톨릭 미사에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상징적 행위와 유비를 이룬다. 다른 생명체의 피를 마심으로써 인간은 그 대상의 본질을 자신 안으로 흡수한다. 이를 통해 대상과 나의 생명은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따라서 미사에서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자아가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것에 묶이게 되는 것을 강렬한 정감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직면함을 의미한다.”²⁵⁾ 예수의 피가 자아 지배적 태도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듯, 에로티시즘 속의 개인은 사랑하는 대상인 대타자의 생명으로 가득 찬다. 그렇다면 피는 관계의 원리로서의 에로스 그 자체

23) Ficino M(1985) : 앞의 책, pp55-56.

24) Jung CG(1989) : *Memories, Dreams, Reflections*, ed. A. Jaffe, English Translation by Clara Winston & Richard Winston, Random House, Inc. p255.

25) Edinger EF(1992) : *Ego and Archetype*, SHAMBHALA, pp231-232.

임을 이해할 수 있다. 격렬한 정감을 동반한 사랑의 피는 자아를 자기(Self)로 데려가 묶는다.

2) 붕괴의 도래

에로스는 기존의 내적세계의 붕괴를 예고한다. 에로스는 종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자아의 경계를 파괴할 수 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자아는 무너진다. 고대철학자들은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으로서, 혼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이 신은 혼돈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질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의식을 교란시키는 실존적 질문에 대면토록 만든다. 또한 자아 중심의 좁은 세계를 초월하도록 돕기 위해 자아를 파괴하려 한다. 따라서 심오한 에로틱한 경험과 마주친 자아가 이에 저항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존의 삶을 방식을 버리거나 희생하려하지 않으며 이로써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에로스는 집단이익의 가치인 미덕과는 때로 아무런 상관이 없기도 하다. 오히려 미덕의 붕괴와 위협할 정도로 가까울 수 있다. 사랑하는 행위는 종종 집단적 가치관의 관점에서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배신의 죄, 유기의 죄, 무정(無情)의 죄, 혹은 사회와 등을 돌리는 죄가 생명의 상위 원리로서의 에로스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위해 때로 저질러진다. “나는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충실해야하는 것인가?”와 같은 정절의 대상에 대한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 의식의 층위에 나타난다. 이때 개인은 집단의 가치와 에로스의 가치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이때 윌리엄 블레이크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상기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단언컨대 어떤 미덕도 십계명의 죄를 짓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미덕 그 자체였던 예수는 자신의 내적 충동을 따랐지 결코 율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²⁶⁾

내적 충동이나 자아의 붕괴는 삶의 부정성에 속한다. 안정과 안락은 긍정성만을 추구하는 형태의 사랑으로, 이런 사랑의 체험에서는 자기애로부터의 초월과 같은 의식의 변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연인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 “내가 사랑의 힘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만일 완전히 그것에 충실하겠다고 결심한 거라면, 너무나 자명한 것이 있다. 내가 지금껏 살

26) Wilson C(1987) : *The Outsider*. TarcherPerigee, p227.

아왔던 삶의 방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이다.²⁷⁾ 긍정성의 사랑은 긴장의 완화나 안락으로서의 사랑만을 욕망한다. 그것은 상처와 열락으로서의 사랑을 욕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에로스는 섹슈얼리티로 축소되며 사랑의 대상 또한 성적 혹은 정서적인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축소된다. 단지 정서적, 성적 즐거움의 대상일 뿐인 연인은 자아를 뒤흔드는 대타자가 될 수 없다. 오직 대타자인 연인만이 사랑하는 자의 자아에 구멍을 뚫고 침투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인간은 몇 가지 도피처를 마련한다. 버림받기 전에 버리거나 혹은 에로티시즘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 성적 탐닉으로 퇴행한다.

에스더 하딩은 성적 발달의 단계를 소개하며 개인의 에로스의 역량에 대해 다루고 있다.²⁸⁾ 이를 정리하면, 원초적 수준의 발달단계에 속한 개인은 사랑의 대상을 오로지 성 자체와 동일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현대의 에로 포르노그래피를 들 수 있겠다. 이 자기색정적인 에로티시즘에서 대상은 성기로 축소되며, 두 인간 사이에 관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발달된 단계에서 성은 정감의 요소를 지니지만 대상은 여전히 집단적 상으로서 경험된다. 이때의 사랑하는 자는 상대의 개별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므로 상대를 유일무이한 개성적인 존재로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발달 단계의 사랑 역시 자기애적 사랑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미발달된 개별화로 인해 그의 사랑은 보다 집단적인 성격을 띠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성은 성취되지 않는다.

유혹받을 수 있는 역량

개성화의 주체가 자기(Self)임을 감안할 때, 자기 혹은 신은 그 자신이 욕망하는 내용을 가진 개인을 원하며 자기의 유혹과 함께 개인은 그것이 요구하는 가치를 살도록 강제된다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혹은 삶과 의식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유혹받을 수 있는 역량은 개인이 가진 변환에 대한 잠재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사랑의 신으로서의 에

27) Han B/김태환 역(2015) : 앞의 책, p85.

28) Harding ME(1973) : *Psychic Energy : Its Source and Its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25-126.

로스가 자아의 현신을 요구하면서 자아를 지배할 때 인간은 성본능의 생명력, 미증유의 창조성 및 열정과 같은 에로스의 가치들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 이 에로스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개인은 운명적으로 에로스의 유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무상성의 자각

1) 자 각

지상의 모든 생명이 영원성을 결핍하고 있음을 정감 속에서 자각한 자, 생명의 무상성을 정서적으로 체험한 개인들은 삶이 한 번뿐임을 고통스럽게 의식하며 영원성을 동경하고 갈망한다. 사고를 통한 자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서적 자각 없이는 우리는 그 무엇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결핍된 존재의 영속성을 이들은 정서를 통해 ‘아는’ 사람들이며 이에 존재의 불연속성에 무감각한 상태로 있을 수 없어 고통 받는 자들이다. 이렇듯 신성에 속하는 영원을 동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무상성에 대한 감정적 자각이 선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신의 속성인 영원성을 추구하고 결합하기를 갈망하게 되며 이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신의 욕망과 일치를 이룬다. 영원은 신 혹은 자기의 영역에 속하는 신성한 요소이지만, 신은 인간의 의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 역시 인간을 욕망하는 것이다.

개성화의 시작과 완결은 자기에 의해 일어난다. 깊은 사랑 또한 자기가 관여하므로, 심오한 에로티시즘에서 추구되는 것 역시 자기의 특성들이다. 에로스에 있어 유희당할 수 있는 역량은 자기의 한 요소인 영원에 사로잡힐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에로티시즘이란 사랑 속에서 영원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바타이유의 정의를 상기해볼 때, 에로스를 통한 개성화 과정에 있어서 무상성에 대한 자각의 선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추구 과정에 현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체험 역시 존재해야 한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욕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에딘저는 연금술에 적합한 자질에 대해 논하는 장에서, 개성화과정을 가장 멀리까지 간 개인들은 거의 항상 어린 시절에 무의식에 대한 의미 있고 결정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유년기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이러한 체험은 아이들을 고립시켜 외로움에 빠지게 하는데 이로 인

해 리비도는 내면으로 향하여 아동의 위협당하는 개별성을 위로해주기 위해 상징과 의미 가치가 부과된 상들을 생성한다는 것이다.²⁹⁾ 즉 이 상징과 상이 운반하는 초월성과 영원성의 감각이 이 고독한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무의식과의 이러한 접촉은 아동으로 하여금 무의식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하여 훗날 자기 및 개성화 과정에 헌신할 수 있게 만든다. 이 관점에서 테오레마의 신비한 방문객과 가족들 사이의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의 원형 이미지인 에로틱한 방문객과 접촉을 통해 이들이 궁극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자기인 것이다. 자기에 접촉한 이들은 그가 사라진 이후 이 신비한 체험에 대한 절망적인 동경 속에서 그를 추구한다. 이렇듯 자기의 한 측면이자 특별히 성본능에 뿌리를 둔 에로스는 폭발적인 유혹의 힘을 갖는다.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이보다 더 개인으로 하여금 자아의 완전한 포기과 대상에 대한 절대적 헌신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동 경

개성화의 요청은 우리 내부의 자기(Self)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는 테오레마에서 신비한 유혹자의 방문에 비할 수 있다. 그의 방문 전, 이 중산층의 안락한 가정 구성원들은 눈을 뜬 채로 잠든 상태였다. 유혹자는 에로티시즘을 통해 이들에게 극도의 황홀경과 충만을 준다. 이 누미노즘의 특성을 띤 성적 체험을 통해 이들은 신을 ‘아는’ 사람들로 변환한다. 그리고 유혹자에게 버림받음으로써 이들은 고통을 아는 존재로, 그리하여 신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찬 존재로 한 번 더 변환한다.

동경은 동경하는 자를 그 대상에 완전히 잠기게 하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사로잡힌다. 신은 그 자신을 위해 우리가 생명의 무상성에 고통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성이 제공하는 충만을 꿈꿀 수 있으려면 신성한 것, 불멸하는 것들에 대한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과 고통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는 자아에 대해 언제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아의 다른 가치들을 후순위로 둘 것을 요구한다. 예수의 말처럼, “누구든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가치가 없다; 누구든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가치가

29) Edinger EF(1992) : 앞의 책, pp294-295.

없다”(마태복음 10 : 37). 자기는 아름답지만 무서운 연인인 것이다. 자기와 마주할 때 어떠한 타협도 허락되지 않는다. 자기는 자아의 완전한 행복을 요구한다.

무상성의 자각과 이에 동반되는 내적 공허는 사실상 자아-자기 축에 균열을 가져온다. 그 결과 축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경이 나타나며 존재의 유한함과 무의미감을 압도할 수 있는 수단중 하나로 에로티시즘에 몰두한다. 이런 형태의 에로티시즘이 제공하는 대상과의 전적인 일체의 느낌은 자기의 한 측면인 대양감(oceanic feeling)과는 전혀 다르다. 에로티시즘에서의 합일의 감정은 삼키고 삼켜지려는 욕망의 순간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연인들은 유한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존재의 영속성에 굶주리며 육화한 신, 육화한 자기인 서로를 합입하기 위해 성애에서 고대 식인풍습의 제례를 재현한다. 어떤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숙고도 잃어버린 영원과의 끈을 회복시켜주지 못한다. 오로지 에로스만이 이 연인들을 잃어버린 신에게 다시 묶어줄 수 있다.

2. 달-의식

“광기 속에서 영혼은 도약한다.”³⁰⁾

황홀경의 여왕으로서 달은 인간 정신에게 가장 위대한 유혹자이다. 그녀는 “엑스터시의 주인으로서 모든 도취와 영감을 다스리기 때문이다.”³¹⁾ “달을 신성시하는 종교에서 달은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숭배를 받았다. 여기서 여성적 원리의 법칙들이 만들어지고 제례에서는 인간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종교의식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³²⁾ 달-의식은 이성의 자명한 빛과 세계를 단순한 차원으로 제한하는 사실주의에 대한 의혹으로써, 삶의 모호성이 숨 쉴 수 있는 그늘에 대한 매혹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달과 에로스의 유비를 상기해 볼 때 달-의식은 에로스적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융은 조이스와 피카소에 대한 에세이에서 이들이 달의 원리, 즉 어두운 여성 원리를 따른다고 주장한다. : “그들은 왼편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이는 저 아래

30) Quignard P(2011) : *Sex and Terror*; English Translation by Chris Turner, Seagull Books, p97.

31) Ronnberg A(2010) : *The Book of Symbols*. Taschen, p28.

32) Harding ME(1990) : *Woman's Mysteries : Ancient & Modern*. SHAMBHALA. p33.

어둠으로, 최초의 생명이 태어난 태고의 점액질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이 깊은 곳들은 어둡고 음침하고 여성적인 시작들이다. 이곳은 지성의 밝은 로고스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어두운 에로스가 지배하는 세계이다.”³³⁾

예술가 혹은 시인들은 에로스의 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무의식의 영향력을 향해 자신을 열어젖히고 유혹에 노출됨으로써 에로스 그 자체를 유혹한다. 시인의 작업은 로고스 원리를 가지고는 근접할 수 없는 사물의 본질을 포착하여 집단의식의 장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에 개인의 시적인 기질은 무의식과 깊은 본능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에로티시즘에 대한 감수성을 보증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유혹은 심리적인 침투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혹받기 위해서는 역설적인 힘인 비-자아의 영향력에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힘, 즉 취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자아의 동요를 허락할 수 없는 개인은 타인의 영혼과 사물에 침투할 수 없다. 따라서 탁월한 유혹자들은 그 자신들이 탁월하게 유혹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비-자아에 속하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질적인 것들의 신비에 자신을 옅으로써 좁은 자아를 초월하여 인격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에로스의 의식인 달-의식은 그 극단에 광기를 담보하고 있다. 루나틱(lunatic)이라는 단어는 광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옹은 광기의 가치에 대해 강조한다. : “사막이 꽃을 피울 때 거기엔 이상한 식물들이 함께 나타난다. 당신은 스스로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실제로 미쳐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광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력이 사라졌다.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상을 통해 가르친 것에 주목하라. 광기는 신성하다는 것을.”³⁴⁾ 개성화 과정에 들어선 개인에게 광기는 피할 수 없는 어둠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릴케가 두이노의 비가에서 포착한 ‘아름답지만 두려운 천사로 등장하는 광대한 무의식의 역설적인 면을 피할 수 없다.

고대 철학자 피치노에 따르면, 이 모든 광기 중, 사랑(amatory feeling)의 광기가 가장 탁월하며 그 이유는 이 광기가 우리를 신에게 가장 가깝게 묶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³⁵⁾ : “(모든 광기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랑(the

33) Harding ME(1990) : 앞의 책, p32.

34) Jung CG(2009) : 앞의 책, p149.

35) Ficino M(1985) : 앞의 책, pp171-172.

amatory)이다 ; 이것 없이 우리는 어떤 시도, 신비도, 광대한 열의를 가진 예언자도, 불타는 신심도, 신성에 대한 정성어린 섬김도 손에 넣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은 사랑의 힘을 통해 존재한다. 이것이 가장 탁월한 이유는 다른 모든 것들이 중국에는 이것과 모두 연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를 신과 가장 가깝게 연결시켜준다.” 에로티시즘은 자기로의 귀환을 가능하게 해 준다. “사랑의 광기를 통해 개인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여 신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달의 원리이자 관계의 원리인 에로스는 개성화를 완성시켜준다. “각각의 성 모두에게 여성성이 개성화를 완성시킨다. 남성성은 원초적 무의식에서 의식성을 발현시키고, 여성성은 무의식과의 접촉을 재수립함으로써 의식의 완성을 발현시킨다.”³⁶⁾

광기를 기꺼이 체험하고 견디려는 태도는 미지의 것에 자아의 경계를 열어 비자아의 힘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정신이 자아와 의식에만 고착되어 생명의 고갈로 이어지는 삶의 반대편의 것이다. 인간 정신은 광기 속에서 도약하기 때문이다.

3. 열정과 에로틱 퍼스널리티

1) 기질로서의 열정

사랑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대상은 연인 너머의 자기이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투사로 인해 사랑의 대상은 자기의 한 측면인 영원성을 가진 담지자로 사랑하는 자를 매혹한다. 개성화 과정에 있어 자기가 자아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듯이 에로티시즘 역시 같은 것을 자아에게 요구한다. 자기는 신앙이나 사랑과 같이 모든 형태의 심오한 체험들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삶의 유한성에 대한 실존적 자각은 멜랑콜리아의 그림자를 개인에게 드리우며 이들은 연인과의 합일을 통해 천상의 요소를 지상으로 불러내려 맹렬히 시도한다. 에로티시즘을 통한 이 폭력적 추구의 이면엔 유한성이라는 실존적 한계 속에서 영속성을 소유하려는 거대한 갈망이 있다. “우리가 욕망의 대상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욕망을 성취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36) Ulanov A(1972) : *The feminine in Jungian psychology and in Christian Theology*.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p269.

37) Bataille G(1986) : 앞의 책, p142.

포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 즉, 정말로 죽고자하는 그 욕망이 대상을 붙들게 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영속적으로 그 대상을 소유하려한다.”³⁷⁾ 에로티시즘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연인을 포용함으로써 그 자신의 필멸의 육체에 불멸성 가두려 고투한다. 죽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둠으로써 죽음을 초월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열정은 라틴어로 ‘고통을 겪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광기의 도약과 고투에서 열정은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격을 ‘에로틱 퍼스널리티’라 부르고자 한다.

에로틱한 인격을 가진 개인은 이렇듯 죽음의 자각으로 상처 입은 자들이다. 그들은 균형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과잉과 극단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열정이라는 불타는 정감을, 이 극단과 과잉의 아이를 비호한다. 신은 미지근한 혼에 대한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 “나는 너의 행위들을, 네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그 중 하나이기를 바랬건만! 네가 미지근하기에-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기에, 나는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릴 것이다.”³⁸⁾ 신은 극단과 격렬함 같은 인간의 자질을 두둔하며 균형을 원치 않음을 명백히 한다. 사실상 자연 자체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며 야훼를 비롯한 모든 고대의 신들 역시 결코 균형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용 분석가인 린 코반은 이 개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사실 우리는 개성화된 정도만큼 균형을 잃고 교란된다. (중략) 우리의 영웅적인 힘이나 영적 의지만큼이나 우리의 병리들, 우리의 상처들, 병약함들, 착란들 역시 우리를 특징짓는다. “건강”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에 비해 질병은 개별적인 현실이다.”³⁹⁾ 사랑의 신은 우리의 광기, 열기, 집착을 먹고 산다. 열정적인 사랑의 신에게는 분노, 고통, 사랑, 광기 간에 아무런 차이 또한 없다. 유리 피테스는 정념의 여인 메데이아의 고백을 통해 비너스의 이러한 강렬한 본질을 묘사한다. : “나는 내가 범하려는 행동이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thymos(생명력, 리비도)는 bouleumata(내가 원하는 것)보다 강하다.”⁴⁰⁾

구원은 열정의 몫이다. 열정만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삶을 탕진하게하고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욕망의 대상을 향해 자신을 던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38) *The book of Revelations of St. John* 3 : 16-17.

39) Cowan L.(2004) : *Portrait of the Blue Lady : The Character of Melancholy*. Spring Journal, Inc., pp110-111.

40) Quignard P.(2011) : 앞의 책, p98.

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에로티시즘은 변환을 위해 낡은 자아의 살해가 일어나는 폭력적인 장이다. 열정이 결핍되어 있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죽이며 어떻게 사랑 속에 있는 신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에로티시즘을 통한 구원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넘쳐흐르는 열정을 가진 자일 것이다. 융이 말했듯, “악마는 희생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눈을 희생할 수 없다. 승리는 희생할 수 있는 자의 것이다.”⁴¹⁾

에로틱한 인격을 가진 관능적인 이 인물들은 열정의 기질을 인격의 핵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폭력적인 신의 에로티시즘을 견디며 개성화의 과정을 가야하는 그들에게 열정은 필수적인 자질일 것이다. 나는 엑스타시의 정수가 오르가즘이라기보다는 무수히 많은 차원에서 사랑의 대상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몸은 아주 조금밖에는 사랑의 대상과 일체를 이룰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에로틱한 그들은 포용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을 절감하고 슬픔에 빠진다. 이들처럼 자아 너머의 ‘그 무엇’의 존재를 막연히 예감은 하지만 닿을 수 없어 슬퍼하는 인물을 묘사한 판화가 있다. 바로 뒤러의 ‘멜랑콜리아 I’다.

2) 노스텔지어와 블루 레이디

융 분석가 린 코반은 뒤러의 판화 ‘멜랑콜리아 I’을 분석하며 노스텔지어와 종교적 멜랑콜리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논한다. 이 작품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블루레이디 혹은 담 멜랑콜리아로 불리는 판화 속 천사는 예감을 하지만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에, 즉 이데아나 원형으로 설명될만한 어떤 대상에 대한 동경에 사로잡혀 있다.

노스텔지어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종결성에 대한 진정한 고통, 그리고 이 상실의 상태가 절대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의 자각”⁴²⁾에서 탄생하다. 노스텔지어와 멜랑콜리아 모두 생명의 무상함에 대한 실존적 고통과 그 결과 나타나는 영원에 대한 동경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에로티시즘의 핵심과 마주한다. 피치노는 에로티시즘의 멜랑콜리적인 본질에 주의를 기울인

41) Jung CG(2009) : 앞의 책, p315.

42) Cowan L(2004) : 앞의 책, p179.

다.⁴³⁾ : “사랑은 멜랑콜리아에 근접한 열정이다.” 멜랑콜리아적 기질을 가진 개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너스의 매혹에 더 민감하다.” 이들은 영원에 대한 동경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너스가 다스리는 영토인 예술과 사랑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깊은 어둠에 대한 자각은 열정과 함께 간다. 폰 프란츠는 어둠의 깊이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마비되어 무관심과 냉담의 특징을 보인다고 말한다.⁴⁴⁾ 그렇다면 아마도 열정을 가진 개인은 어둠의 깊이를, 그 비옥함을 아는 자들일 것이다. 우리의 정신 깊은 곳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욕망을 포함하여 많은 양의 리비도가 흐르고 있다. 에로티시즘은 고통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즉 열정의 사람들을 기다려 왔다. 이들은 죽음 속에 숨겨진 생명의 씨를 감지하여 영혼의 검은 속에 있는 한 줄기 빛에 이끌리도록 운명 지워진 자들이다. 이들은 거대한 구멍을 자신의 영혼 속에 가지고 있다. 이 구멍, 이 상처, 이 공허가 의미상 고통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열정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허는 단지 지속되는 상처일 뿐만이 아니라 신성의 영원한 세계로 난 길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내적 상처는 신성해진다. 우리가 이러한 영혼의 결핍을 정서적으로 각성하지 못한다면, 신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르는 통로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시인 로르카는 두엔테(duende)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개인의 통렬한 본질을 묘사한다.⁴⁵⁾ : 두엔테는 “통제되지 않는 순수한 시적 정감, 제한 없고, 새롭게 창조된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이다.” 두엔테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는, 비합리, 지상적인 것, 죽음에 관한 고조된 자각, 마성이다. 이들 대부분이 에로티시즘에 공통된 요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 수 있다. 두엔테는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피의 저택”에 살고 있으며, 배울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 이유는 “두엔테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지도도 혼련도 없이 때문이다. 우리가 두엔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이 부러진 다리에 댄 뜨거운 스포제처럼 피를 불태우며, 탕진 시키고, 우리가 배웠던 모든 달콤한 기하학을 거부하고, 형식을 분쇄하며, 어떠한 위안도 없는 인간의 고통에

43) Ficino M(1985) : 앞의 책, p123.

44) Von Franz M-L(1993) : 앞의 책, p204.

45) Lorca FG(2010) : *In Search of Duende*. English Translation by Christopher Maurer, A New Directions Pearl, p.ix-x.

의지한다는 것이다.”⁴⁶⁾ 심오한 에로티시즘 안에는 두엔데가 꿰고 있다. 이 피의 열정만이 미지근하고 피상적인 정감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 어두운 정감과 고통이 사는 신성한 심연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심연으로의 추락 : 멜랑콜리아

1. 유혹으로써의 부재

자아가 자기와 일체를 이루던 천국의 상태에서부터 버림받는 것은 의식이 태어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의식화를 위해 인류는 모두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의식화를 위해서는 자각의 수준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단지 그것을 체험하는 의식의 강도와 수준만큼만 삶의 사건들의 의미도 체험되기에 자각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만으로는 진정한 자각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환은 반드시 강렬한 정감을 동반해야 한다. 오로지 정서적 지식만이 인격의 변환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버림받는 체험을 하는 것은 더 큰 의식성을 가지고 개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에로티시즘을 통한 개성화과정에서 자기(Self)에 대한 체험은 중요하다.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정서적 자각만큼 이와 대비되는 영원을 향한 감각을 일깨우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영원성’에 눈을 뜬 사람만이 각성 상태로 영원의 결핍을 느끼며, 이 결핍이 유발하는 고통을 겪을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영원을 추구할 수 있다. 추방과 유기는 사랑의 대상이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연인이 부재로써 존재하는 역설적 세계로 추락하는 것이다. 떠난 사랑은 부재가 되어 이전 보다 더 강력하게 사랑하는 자를 유혹하는 것이다. 깊은 사랑의 대상은 인격화된 자기이다. 극히 소수만이 이러한 원형적 에너지의 상실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 속에서 자기를 체험한 개인에게 버림받음은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들은 훗날 자신들이 해매고 있는 폐허가 어떻게 불리는지 전해들을 것이다. 이 폐허의 이름은 멜랑콜리아이다.

46) Lorca FG(2010) : 앞의 책, pp59-60.

2. 멜랑콜리아 : 신의 검은 사랑

만일 개인이 자기원형의 운반자인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존재가 해체되는 멸절감일 것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허무감에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고 이어진다는 신념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완전한 절망일 것이다. 죽은 신의 세계에서는 그의 영혼에 죽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육화된 신이자 연인인 대타자는 부재를 통해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감을 획득한다. 부재하는 연인은 사랑에 빠진 채로 버림받은 이의 환상과 정서를 지배하며 ‘죽었으나 죽지 않은’ 상태로 들어 올려 진다. 신화는 환상이 살아있는 육체만큼이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시스가 사라진 팔루스의 이미지만으로도 오시리스를 부활시켰음을 상기해보라. 그녀는 오시리스의 팔루스를 종이로 만들어 스스로를 수태시키고 새로운 생명인 호루스를 창조했다. 부재하는 연인은 죽었으나 죽지 않은 채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수태시켜 자신을 닮은 자율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해 낸다. 이리하여 버림받은 이 연인은 흑화된 대타자인 자기의 그림자와 사랑에 빠진 상태로 변환한다.

사랑을 잃은 자는 ‘살아있는 죽음’이 된다. 우리는 음울한 우울증 환자인 뱀파이어 원형 이미지를 통해서도 이러한 존재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 자기로부터 버림받은 자아는 자신 안에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영원한 갈증으로 고통 받는다. 이것은 멜랑콜리아에 시달리는 개인들만 겪는 드문 현상이 아니다. 당신은 이러한 굶주림을 어디서든 마주칠 것이다 ; 때로는 자신이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순간들마다 당신 자신 속에서도 이들을 발견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둠으로 추방당한 자들이다. 나는 이들의 내부의 심연이 뱀파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왔다고 상상한다. 어쩌면 니힐리즘은 이 갈증의 자연스러운 결말일지 모른다.

연인의 모습 속에 육화된 신은 그 자신의 에로티시즘을 통해 인간을 유혹하여 오랜 잠에서 깨운다. 그리고 유기를 통해 자신의 유혹을 완수한다. 인간은 이제 신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멜랑콜리아의 검은 물속에서, 영원을 동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자각에 도달하여 마침내 고통의 역량을 획득한다. 이 고뇌는 신에 대한 고통이다. 이전의 미지근한 존재였던 그는 이제 오로지 신을, 그 궁극의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존재로 변환된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은, 그 극단적인 변환의 관점에서 보면, 에로스애의 고통스런

입문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고난이 그를 기다린다. 이제 이 상처 입은 자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신을 그 자신의 영혼 속에 육화해야한다.

3. 에로스의 삼각주 : 가톨릭 미사, 에로티시즘, 멜랑콜리아

멜랑콜리아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비너스의 영역인 예술과 에로티시즘에 끌리는 경향이 있음은 앞서 언급되었다. 코반은 당시 이들을 향한 고대인들의 시각을 소개한다.⁴⁷⁾ “(이들은) 극한의 상태에, 위협과 광기 그리고 천재성의 언저리에 살았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번뇌를 줌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신에 의해 가장 쉽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이 보였다.”, “멜랑콜리아의 기질을 가진 이는 기질적으로 지적, 정서적 동요에 높은 취약성을 타고났다. 신이 선사한 이 자질은 창조적 광란이나 심오한 절망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의식과 정감에 과도하게 민감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서의 강렬한 동요가 창조의 근원이며 고통에 민감한 경향이 신성에 뿌리를 둔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멜랑콜리아가 선천적인 기질이든 병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멜랑콜리아의 상태에 놓은 개인은 영원에 대한 동경과 영원에 대한 절망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멜랑콜리아적인 노스탤지어는 영원에 대한 영원한 동경이다. 멜랑콜리아 환자들은 인간이 필연적인 죽음과 시간의 올가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애도한다. 그 밑바닥에는 멜랑콜리아적인 노스탤지어와 *acedie*(영적 우울, 영적 절망의 상태)라는 중세적 고통 사이에 아주 가까운, 너무 가까워 거의 치명적인 연관성이 있다.”⁴⁸⁾ 이러한 영적 고통과 멜랑콜리아적인 노스탤지어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 신성을 추구하려는 에로티시즘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에로티시즘에 나타나는, 자기의 상징인 연인을 향한 삼키고 삼켜지려는 격렬한 충동 역시, 멜랑콜리아 환자들에 공통된 함입 판타지와 일치되는 부분이다. 이로써 우리는 에로티시즘과 멜랑콜리아의 근저에서 카니발리즘, 즉 식인풍습의 고독을 발견할 수 있다.

카니발리즘의 상징은 가톨릭미사에서도 발견된다. 고대 종교의례 속 인신공

47) Cowan L(2004) : 앞의 책, pp121-122.

48) Cowan L(2004) : 앞의 책, p180.

양과식인풍습은 예수의 희생과 영성체와 연관이 있다.⁴⁹⁾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인류는 욕망의 대상을 삼키고 그에 의해 삼켜지려는 갈망에 오랜 시간 사로잡혀 온 것 같다. 먹는다는 행위는 살해와 통합의 상징적 행위로 살해대상의 재탄생을 목적으로 한다. 빵은 자발적으로 음식으로 변환한 신 자신이며 와인은 예수의 피로 간주된다. 이 포도주는 그 안에 신이 거주하며 도취를 생산하는 영감을 주는 음료이다.⁵⁰⁾ 피는 생명의 창조와 감정의 상징으로 기독교 의례는 피의 봉헌의 전통이 있다. 영성체는 인간과 신 사이에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하기위해 육체와 피의 봉헌, 그리고 합입이라는 카니발리즘적인 성격을 띤다. 미사의 정서적 엑스타시는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자인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데 있을 것이다. 식인의 순간과 신을 먹는 순간은 같은 가치를 지니며, 이 순간 인간의 오랜 고통인 무의미와 외로움은 마침내 끝이 난다. 에로티시즘 안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구원의 요소는 멜랑콜리한 개인들을 매혹시키며 영원에 대한 동경이 이들을 에로티시즘에 묶이게 한다. 이들은 죽음에 대한 슬픔과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인 영원과 합일을 향한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다. 이들이 혼례의 침상에 누워 구원의 열망과 흥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연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너머의 존재인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 이미지들의 영감 속에서 우리는 미사와 에로티시즘 그리고 멜랑콜리아 사이의 연결 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에로티시즘의 장에서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살과 피를, 육체와 영혼을 사랑의 대상에게 가지고 온다. 예수의 피의 등가물이 여기서는 정감, 침, 정액, 눈물, 땀 등이며 이들은 두 연인 사이에서 교환된다. 침투, 입맞춤, 깨물기, 빨기, 삼키려는 행동들은 모두 서로를 먹으려는 행동과 연관이 있다. 두 연인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서로를 먹고 서로에게 먹힌다. 이때 그들이 먹여주고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들 너머의 존재, 즉 사랑의 신인 에로시이자 서로에게 투사된 자기의 원형상이다. 두 연인은 사랑의 행위 속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준다. 이 완전한 '자아의 방기', 완전히 '주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미사의 희생을 떠올리게 한다.

49) Jung CG(1969)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223.

50) Jung CG(1969) : 앞의 책, p223.

유희는 제례 속 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가 희생하는 자의 의식의 태도라고 보았다.⁵¹⁾ : 희생하는 자가 그 희생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이를 완전히 의식한 상태에서 희생의 행위를 할 때만이 순수한 희생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의 항의를 억제하고 자아가 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자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봉헌물은 희생을 올리는 자 자신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희생은 오로지 의식적으로 자아 중심적 태도를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절대적인 ‘주는 행위’는 자아에게는 그 자신의 완전한 상실로 경험될 것이다.

미사의 육체적 기저에는 예수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 있다. 유희는 이것을 벌을 받는 신으로 해석한다.⁵²⁾ 자아가 자기의 부분이듯, 예수도 신의 부분이다. 따라서 예수가 희생될 때 희생자는 또한 신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벌의 이유를 유희는 세계의 창조주인 신 자신이 이토록 불완전한 세계를 창조한 죄를 범한 데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미사와 에로티시즘 간에 신의 죄에 대한 유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대표적인 속성으로서의 에로스 역시 비통하리만치 불완전하게 사랑을 창조한 죄가 있다. 두 연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하든 사랑에는 늘 절망의 느낌이 있다. 이는 대상과의 영원한 결합에 대한 갈망과 그것의 불가능성 간의 불일치와 관련이 있다. 이 간극을 예리하게 자각하는 자는 연인의 육체를 통해 잡히지 않는 영원성을 더 폭발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추구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바람을 쫓고 있다. 에로티시즘은 곧 부패해 흩어질 육체를 연기와도 같은 영원성에 새기려는 무모한 충동일지 모른다. 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는 증발성이라는 거품의 본성상 그러한 파괴와 상처의 요소를 타고나기 때문이다. 영원한 결합에 대한 욕망과 그 불가능성은 자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에로스의 본질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가 신의 일부이듯, 사랑하는 자는 에로스의 일부이다. 이에 에로티시즘의 제단에 엮드린 연인은 그 자신이 봉헌물이자 희생하는 자이며, 궁극에 있어 에로스 신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에로틱한 포용을 통해 고통 받는 것은 연인들만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에로스 역시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고

51) Jung CG(1969) : 앞의 책, pp254-259.

52) Jung CG(1969) : 앞의 책, p268.

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융은 미사를 개성화과정에 대한 유비로 해석하였다. “성찬식의 신비는 아직 그 자신의 일부인 상태에 지나지 않는 실증적인 인간의 영혼을 전체성의 상태,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상태로 변환시킨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사를 개성화과정의 의례라고 말할 수 있다.”⁵³⁾ 미사처럼 에로티시즘도 신의 육화의 드라마를, 신이 인간이 되는 드라마를 반복한다. 미사를 통해 신자의 영혼이 예수에 동화되고 그의 형상이 신자의 영혼 속에 태어나듯이, 사랑하는 자는 연인을 통해 자신의 영혼 속에서 영원성을 현현시키고자 한다. 에로티시즘에 있어 이러한 자기의 현현과 자기와 자아간의 상호 변환을 우리는 개성화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고통 받는 우울한 연인은 자신의 암흑에서 구원되기를 갈망한다.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의 정신은 에로티시즘의 제단에서 육화의 드라마를 재현한다. 생명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은 영원성의 담지자인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의 영혼에서 재탄생할 때까지 멈추지 못한 채 이어진다.

심연의 납치

1. 상호 침투

에로스는 에로스를 추구한다. 모든 개성화 과정의 시작의 주체가 자기이듯, 에로티시즘을 통한 개성화과정 역시 자기의 한 측면인 에로스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구원을 더 바라는 존재는 어쩌면 인간보다 신일지 모른다는 결론에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의 예를 욕기와 샤먼의 입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욕기의 야훼는 욕에게 완전히 몰두하며, 샤먼의 신들 역시 입문자가 자신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를 유혹하고 고문한다. 이 신들은 생존을 위해 인간의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환의 검은 물속에 잠긴, 에로스의 니그레도의 상태에 있는 버림받은 연인은 사랑의 기억 속에서 에로스를 그리워한다. 이제 우리는 그가 명료한 의식 하에 자신의 공허를 응시하고 있으며 삶의 덧없음과 사랑의 무상함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안다. 이제 그의 과제는 이전에 자신이 관통 당했듯, 연인으로 인격화된 에로스 안으로 뚫고

53) Jung CG(1969) : 앞의 책, p273.

들어가는 것이다. 에로스는 다시 한 번 그에게 인격화된 연인의 형태로 나타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과제는 에로스를 유혹하고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영혼 안에 신성으로서의 사랑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두 연인, 혹은 인간과 신 사이의 상호 침투에는 자기의 이중적인 면이 개입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가 작업할 때, 연인들은 존재의 모든 차원;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 모두에서 서로에게 침투하고 침투됨으로써 자기에 도달한다. 반면, 자기의 그림자가 작동할 때는 권력추동과 혼합된 엄청난 양의 매혹이 관계를 압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상호침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경우 양쪽의 자아는 모두 비워질 수 없다. 한쪽은 권력으로 비대해지고, 다른 쪽은 우주적 희생양으로 팽창된다. 나는 사랑의 이 두 양상을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신성한 광기 : ‘히로시마, 내 사랑’

뒤라스가 쓴 시나리오 속의 여주인공, 18세의 프랑스 소녀로서 제 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점령군의 한 병사와 사랑에 빠졌던 그녀는 사랑을 “안다.” 연인은 살해되고 주인공은 분노한 이웃들에 의해 머리를 깎인 채 지하실에 갇혀 극한의 고통으로 정신착란 증상을 겪는다. 광기에서 회복된 후 그녀는 고향을 떠나 파리에 도착하는데, 도착 순간 히로시마의 원폭에 관한 뉴스를 듣게 된다. 많은 세월이 지나 영화 촬영 차 히로시마에 들른 그녀는 그곳에서 일본인 남자와 하루 밤을 보낸 후, 사랑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 한다.

느베르에서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는 연인을 껴안았다. 그리고 그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육체와 자신의 육체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그 이후 그녀의 몸은 자신의 연인이 문헌 살아있는 무덤이 되었다. 주인공과 일본남자의 대화 속에서 느베르의 연인과 일본인은 서로 섞인다. “당신을 맞본 이래로 나는 피를 사랑했지요.”: 일본인과 그녀의 죽은 연인이 오버랩 되는 것이다. 지하실에 갇혔을 때 그녀는 종종 자신의 손등을 돌 벽에 문질러 그 피를 맛보곤 했다. 죽은 연인과 자신의 피가 광기의 고독 속에서 섞였던 것이다.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 그녀는 반복해서 죽은 연인을 먹고, 그럼으로써 자신 안에 그를 육화시키려고 시도했다.

일본인은 자기 곁에 더 머물 것을 그녀에게 요구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그러나 독백 속에서 그녀는 히로시마에, 새로운 사랑 옆에 머물고 싶다고 외친다. 느베르의 사건 이후 그녀에게 사랑은 피와 죽음,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불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다시 사랑에 빠짐으로써, 영원한 줄 알았던 사랑역시 망각의 운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 것이다. 그녀의 상처는 자신이 사랑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이에 대해 뒤라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 “그녀에게는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느베르에서 죽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리고 히로시마에 오기 전까지, 그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유일무이한 기회를 결정지을 수 있기 전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심정으로 살아왔던 것이다.”⁵⁴⁾

자아의 완전한 파괴를 향한 죽음과 폭력의 충동들, 에로티시즘의 핵심 요소들이 그녀에게서 나와 일본인 연인에게 향한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 속에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항복 속에서, 히로시마의 연인으로 육화한 영원성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한다.

“당신을 만나게 되는군요.

당신을 기억해요.

이 도시는 사랑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바로 내 몸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굶구려있었습니다. 불성실, 간통, 허위,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갈망에—
오래전부터.

언젠가 당신을 우연히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요.

나는 침착하게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무한한 인내 속에서.

나를 삼키세요. 나를 당신의 모습으로 변형시켜주세요. 그리하여 아무도, 당신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그 커다란 욕망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⁵⁵⁾

54) Duras M(1961) : *Hiroshima, Mon Amour*, Translated by Richard Seaver, Grove Press, Inc., p111.

55) Duras M(1961) : 앞의 책, p77.

그녀의 독백은 그녀의 정절이, 사회적 기준이나 자아가 아닌, 오로지 그녀 자신의 에로스의 본능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욕망을 느끼는 대상과 하룻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허용한다. 그리고 이 조우는 뜻밖에도 그녀의 운명이 된다. 융 분석가인 코벳은, 만일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꾀안는데 실패하면 그녀는 자신의 영성에서도 차단당한 상태로 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⁵⁶⁾ 욕망과 열정은 인간의 영역 너머의 극단까지, 원형들의 에너지가 살아 숨 쉬는 그 깊은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뒤라스 역시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주인공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를 향한다. 이것은 에로스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즉 사랑의 여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의 핵심적 태도일 수 있다. 이는 에로티시즘의 원형적 어둠에서 나오는 영향에 자신을 기꺼이 노출시키려는 의식의 의지이기도하다. 주인공은 그녀의 삶 전체를 이 힘에 열어 에로스의 모든 요소들을 수용하고 살아낸다. 두엔데처럼 사랑의 성향은 주어진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일생동안 사랑의 성향을 지닌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식의 명징함을 가지고 금기를 깰 수 있게 하며 제한된 의식을 확장시켜 광기에 이르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 둘은 이 세상의 질서와 안전에 대한 위반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에로티시즘과 범죄는 그토록 서로 가까울 수 있다.

멜랑콜리아를 앓고 있음이 분명한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멜랑콜리아의 경향을 가진 자들이 대상의 상실에 지배된다는 것은 오랜 신화다. 죽음은 상실의 명징한 원인이며 망각 또한 죽음의 다른 형태이다. 우울한 그녀는 이 이중의 상실에 시달리는 자이다. 새로운 운명적인 사랑을 마주한 주인공에게 네베르의 연인과 히로시마의 연인은 서로 겹쳐지고 둘 간의 구별은 사라진다. 둘은 같은 이름과 같은 얼굴을 가지며, 같은 동경과 같은 열망을 그녀에게 일깨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연인의 원형을 운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코 혼자오지 않고, 언제나 영원한 연인인 에로스 원형과 함께 나타난다.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연인에게 사랑은 죽음 혹은 망각, 혹은 둘 다의 등가물이다. 에로티시즘을 깊이 체험한 자들은 이런 형태의 죽음이 무엇인지 안다. 그

56) Qualls-Corbett N(1988) : *The Sacred Prostitute : Eternal Aspect of the Feminine*, INNER CITY BOOKS, p139.

러나 심오한 사랑의 체험을 통해 한번 창조된 사랑과 욕망의 성향은 이들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자아와 에로스 간에 만들어진 이 축은 때로 일그러질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욕망의 신은 불멸하며, 그 본질상, 언제나 대상을 필요로 한다.

느베르(Nevers), 연인으로서의 입문식을 치르고 운명을 획득했던 이 장소는 사랑이 주는 고통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장소이기도 하다. 주인공에게 느베르는 사랑의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이자 사랑 그 자체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녀는 히로시마에서 느베르의 쌍둥이를 발견한다. 그리하여 히로시마 역시 사랑과 사랑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다. 영화 말미에 그녀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그녀의 두 연인들 사이에, 사랑의 가능성과 사랑의 불가능성 사이에서 마술이 일어난다.

그녀 : “히-로-시-마.

히-로-시-마.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 : “그래요, 그것은 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느베르.

느-베-르”

그녀의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은 새 연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그리고 그는 깊은 사랑으로 그녀의 핵심을 취하며 그녀에게 그녀 자신의 진정한 이름인 느베르-현재의 그녀를 만든 존재의 핵심-를 의식하도록 해준다. 그녀는 이 일 본인 이전에 그 누구와도 느베르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느베르의 비밀을 나눈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이다. 그녀는 지금의 그녀를 만든 고통스러운 실패의 이야기를(사랑의 위해 죽지 않았던) 들려줌으로써 그에게 자기 존재의 핵심을 준 것이다. : “자신의 잃어버린 기회를(사랑을 위해 죽을 수도 있었던) 이야기하는 이 행동은 글자 그대로 그녀를 그녀 밖으로 꺼내어 새 연인을 향해 그녀를 나아가게 한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준다는 것,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준다는, 바로 그것을 한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결혼”과 등가의 것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녀는 “히로시마”에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준다. 그것은 현재의 그녀, 느베르에서의 연인의 죽음 이후 살아남은 그녀, 그녀라는 존재를 이루는 모든 것을 그에게 준 것이다.”⁵⁷⁾ 그녀는 느베르 이

57) Duras M(1961) : 앞의 책, p112.

후 처음으로, 자신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새로운 사랑에게 줌으로써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넘어선다.

개인의 운명은 많은 경우 정절의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헌신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이 아닌, 에로스의 영토인 자신의 성적 본능과 감정이다. 느베르 체험에서 그녀는 에로스에게 정절을 발달시켰고 이후에도 이 헌신을 지속했다. 느베르에서의 그녀는 적군을 사랑했고, 히로시마의 그녀는 하룻밤일지 모르는 사랑의 기회에 자신을 열었다. 주인공의 정절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 안의 에로스이며 주인공은 이 원리가 집단의 가치나 자아의 안위와 대립될 때는 언제나 에로스를 선택하는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 선택을 명확한 의식 하에 행하며 스스로를 속이거나 합리화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자신이 “의심스러운 도덕성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높은 가치이자 생명의 원리인 에로스는 그녀의 자아와 사회적 도덕에 대한 성실성을 제한한다. 그녀는 에로스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자기 자신, 안위와 안전에 대한 요구, 집단의 가치체계에 대한 성실성을 뚜렷한 의식성을 가지고 희생시킨다. 용은 신들에 대한 필레몬의 환대를 예를 들면서 중국엔 사랑하는 자가 살아남으며, 오로지 사랑하는 자만이 분리되었던 것을 모으고, 위와 아래를 묶는데 성공한다고 말한다.⁵⁸⁾ 느베르의 이 여인, 히로시마의 이 여인은 진정한 에로스의 후손이다.

에로스의 초대를 받았던 이 느베르의 여인은 자신의 희생적 행동과 사랑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통해 진정한 연인이 됨으로써 에로스를 유혹할 역량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데 대한 그녀의 치명적인 절망은 오로지 사랑을 통해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절망이자, 진실한 연인만이 할 수 있는 통렬한 고백이다. 그녀는 사랑의 영원성을 잡을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에 고통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다. 사랑에서 영원을 추구하지 않는 혹은 추구할 수 없는 사람은 그녀와 같은 이유로 고통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반-에로티시즘 : ‘워터 드롭스 온 버닝 록스’

연기같이 사라지는 증발성 역시 사랑의 한 본질을 이룬다. 이것이 망각의 형

58) Jung CG(2009) : 앞의 책, p407.

태로 느베르의 여인을 괴롭혔던 고뇌의 정체이다. 증발되는 것은 멜랑콜리아를 가진 개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영원성일 것이다. 우리는 불타는 바위로 떨어져서 곧 사라질 물방울을 바라보는 두 타입의 연인을 상상해 볼 수 있다. : 에로티시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연인은 물방울의 죽음을 보고 그 덧없음과 자신의 존재를 연관 짓지 않을 것이다. 증발되는 물방울에 흔들리는 사람은 멜랑콜리아의 피가 흐르는 사람, 존재의 무상함에 고통 받는 사람, 그리하며 에로티시즘에서 영원을 추구하게 된 사람일 것이다. 파스빈더 감독의 연극대본을 각색해 만들어진 본 영화는 에로스의 그림자가 개입된 반-에로티시즘의 암울한 풍경을 따라간다.

내가 반-에로티시즘이라 부르는 이것은 포르노적인 에로티시즘도, 비-에로티시즘도 아니다. 그것은 기형적으로 변형된 에로티시즘으로, 엄청난 매혹을 동반한 권력의 원리가 사랑을 압살하는 형태의 에로티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로티시즘처럼 반-에로티시즘 또한 성과 사랑을 통해 개인을 변환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검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어떤 황홀도 없이 파괴되고 죽는다. 에로티시즘이 고통을 통해 우리의 의식과 인격을 확장시키는 반면, 반-에로티시즘은 정신적 감옥을 창조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급격하게 축소시킨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 검은 에로티시즘의 희생자인 베라가 유혹자 레오폴드 집의 창문을 여는데 실패하는 장면으로 이 장면은 반-에로티시즘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유혹자인 레오폴드는 테오레마의 신성한 유혹자의 거울 이미지로 보인다. 두 인물 모두 수수께끼 같은 마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들과 사랑에 빠진 상대를 에로티시즘을 통해 변환시킨다. 두 인물 모두 두드러지게 양성적인 특징을 띠는데(남녀 모두와 사랑을 나눈다) 이는 대극의 합일로서의 자기의 특징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자신의 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두 인물 간에는 근원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 한쪽은 조종하고 다른 쪽은 영감을 준다, 한쪽은 착취하고 다른 쪽은 준다. 전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자신의 성을 사용하고, 후자는 사랑의 대상을 위해 자신의 성을 사용한다.

넛을 앗아갈 정도의 매혹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어떤 인물도 에로스와의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사랑은 자신에 대한 지식과 성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인물들을 끌어내린다. 유혹자와 유혹받는 자

의 자아 모두 비워지지 않는다.: 한쪽은 권력에 대한 도취에 잠겨있고, 다른 쪽은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력을 희구함으로써 우주적 희생자라는 은밀한 인격의 팽창을 겪는다.

레오폴드에게는 프란츠와 베라라는 두 명의 희생자가 있다. 그의 유혹의 결과 프란츠는 레오폴드의 정서적, 성적 노예가 된다. 레오폴드의 전 연인이자 남성이었던 베라 역시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성전환까지 감행하고 여자가 되었으나 버려졌다. 프란츠는 레오폴드와의 조우 이전과 이후 모두 사랑의 역랑에 변화가 없다. 그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앤은 착취적으로 대하며 레오폴드에게는 복종적이다. 베라는 레오폴드의 사랑을 갈망하는, 오로지 사랑받고자 하는 자아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방기한 인물이다. 테오레마의 인물들이 유혹자와의 포옹을 통해 자신들의 무의식상태를 깨닫고 자기 지식을 얻는데 성공하는데 반해, 프란츠와 베라는 이 상태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고 유혹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이들의 실수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들의 고유한 성적 본성과 감정을 유기했다는 데 있다. 이들은 신성으로서의 에로스를 정신의 주변부로 강등 시킴으로써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들은 사랑을 돌려받는데 집착하다 자신을 잃었고 이러한 자아의 욕망에 몰두함으로써 아무런 진정한 희생을 할 수 없었다. 자아를 희생하지 못하는 무능 때문에 권력욕이 그들을 오염시킨 것이다. 사랑이 이런 식의 거래원리에 의해 지배되면 권력이 에로티시즘을 압제하게 된다. 프란츠와 베라는 사랑을 주려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있다. 사랑받고자 하는 자아의 욕망이 에로스를 밀어내고 신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신인 에로스는 버려지고 짓밟힌다.

자아를 희생할 수 없는 연인들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 에로스는 파괴적으로 돌변한다. 이 영화는 성이 가진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무엇과 직면하게 되는 지를 보여준다. 레오폴드는 관계를 묘사할 때 “고의로 이기려던 게 아니야”(프란츠를 정복한 것에 대한 대사)와 같은 권력에 기반을 둔 어휘를 사용한다. 아래의 대사 역시 권력이 지배하는 관계양식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보여준다. 이 대사는 레오폴드가 이들을 그룹섹스에 초대할 때 나오는 대사이다. 프란츠와 베라 모두 그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무감한 제안에 상처받는다. 그들은 마지막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레오폴드가 자신들을 욕망하는지 묻는다.

프란츠 : “당신, 내가 필요해요?”

레오폴드 :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베라 : “당신은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레오폴드 : “그렇지만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권력에 굶주린 태도가 이런 형태로 사랑을 지배하면, 사랑은 오염되어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이 게임에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있다. 프란츠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레오폴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베라는 프란츠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녀 역시 레오폴드에게 사랑받으려는 굶주림에 자신을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신의 대상이 무엇이어서 하는 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이다. 자신 안의 에로스에 헌신한 ‘히로시마, 내 사랑’의 여주인공과 달리 프란츠와 베라의 현신의 대상은 에로스가 아닌 자아를 향한다. 이들은 자기(Self)를 위해 자아를 포기할 수 없어 개성화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아에게 희생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을 때, 신의 자비는 멈추는 것 같다. 프란츠와 베라가 갇힌 감옥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 하나는 악마적 연인이라는 원형 에너지의 범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향한 자아 중심적인 태도이다. 이곳에는 겸허한 희생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처형된 사랑만이 존재한다.

2. 에로스로의 입문식

1) 신성혼

본질적으로,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 삶은 신성혼을 구현하려는 삶이다. 로마와 그리스 교회는 인간 남녀의 결혼을 영혼과 신의 상징적 결합인 성체로 간주한다. 에로티시즘에서도 역시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연인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기(Self)와 등가인 불명성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단지 갈망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결합의 주도자가 신 혹은 자기이지 자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에로티시즘은 궁극적으로 신의 에로티시즘인 것이다. 에로스는 이 결혼을 통해 인간 반려자가 신 자신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재생산하기를 염원하기에 인간 연인의 특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이 연인을 통해 그는 자신이 깃들 지상의 땅을, 기거할 육체를 얻는다.

에로티시즘과 신성혼 사이의 상징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신성혼의 심리학적인 의미를 들여다봄으로써 어떻게 인간이 에로스를 유혹하여 자신 안에 거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신성혼이 신성한 창녀 원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과 마주한다. 이 원형은 여성 원리로서의 에로스의 다른 이름들인 달의 여신, 처녀 신, 그리고 사랑의 신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고대에 “처녀 신을 모시는 제례는 신성혼을 요구했다. 이 제례에서 여성의 성과 사랑의 생명력은 신전 안에서 거행된 신성한 매춘의 행위를 통해 여신에게 바쳐졌다.”⁵⁹⁾

고대의 신성한 창녀는 사랑의 신을 모시는 사원의 여사제였다. 그녀는 생명력의 고갈로 인한 고통 때문에 여신을 알현하려는 남성과 동침하곤 했다. 신성혼이 이루어진 후에, 그 남성은 신성한 창녀의 이미지를 통해 사랑의 여신의 원형적 에너지를 내면화 했다.⁶⁰⁾ 에로스는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원형적 상들과 투사를 통해서 이 에너지에 접근하거나 이를 경험할 수 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주로 인간의 형태로, 인간 연인으로 이 원형을 체험한다. 즉, 사랑의 대상은 에로스의 운반자이자 상징물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은 원형적 누미노즘에 뿌리를 둔 폭력적 도취의 대리자인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사랑의 본성을 여신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이 신성혼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심리적인 처녀성임을 의미한다. 심리적 처녀성의 의미는 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그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사랑의 여신에게 속하는 것임을 의식화한 존재의 상태를 말한다. 즉 이 지식을 가진 여성은 자신이 생명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와 정신 역시 이 표명된 생명의 운반자라는 것 또한 자각하고 있다. 이러한 처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체험에서 자신이 섬기고 헌신하는 대상이 결코 자신의 자아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에로스여야만 한다. 사랑을 할 때 그녀는 자아의 안위에 대해 개의치 않고 자신의 성적본질과 본능에 성실해야한다. 그녀의 궁극적인 상대는 자신의 성과 본능이지 그녀의 파트너나 남편이 아닌 것이다. 반면 사랑이 그녀의 자아를 섬기게 되면 그녀는 자신의 남자를 통해 결혼을 통한 안전, 보답을 전제로 한 사랑, 혹은 재정적 안정과 같은 자아의 요구들을 얻으려 한다.

59) Harding ME(1990) : 앞의 책, p144.

60) Qualls-Corbett N(1988) : 앞의 책, p23.

이 경우 그녀가 하는 사랑은 단지 욕망에 불과하게 되며, 그녀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와 “나는 나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한다.”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다.⁶¹⁾ 만일 그녀가 심리적인 처녀성을 획득한다면, 그녀는 자아를 자기에 복종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에로스를 내면화시키고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을 얻는다. 따라서 자신의 사랑을 인지하고 그것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헌신하는 것이 신성혼의 정수이며 이 결혼을 통해 신은 여성을 심리적 처녀로 변환시킨다.

하딩은 신성혼의 장에서 행해지는 에로스애의 입문식에 두 단계가 있다고 소개했다.⁶²⁾ 첫 번째 단계에서 여성은 자아의 안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성분능과 욕망을 경험해야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 있는 남성의 사례는 이집트의 세트나 정욕이 넘치는 타이폰과 유사한데, 그는 반드시 자신의 남성적 생명력과 성적 욕망을 그 극한까지 경험해야만 한다. 이 단계의 남녀 모두는 에로스가 선사한 자신의 성을 남김없이 체험하고 사랑의 여신과 자기만의 고유한 개인적인 관계를 획득해야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성은 자신의 모성적 부드러움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모성적 부드러움이 상대 남성을 그녀에게 의존적이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녀 역시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지배자는 지배되는 상대에게 묶이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 자신이 그 상대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녀가 의지해야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여신, 즉 에로스 그 자체여야 한다. 한편 남성은 이 단계에서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를 희생해야하며 자신의 여인과 그 자신의 감정을 반드시 그 극한까지 경험하고 견뎌내야 한다. :“(신성혼인) 사랑의 여신애의 입문식에 참여한 남성은 자신의 감정의 격렬함을 깊이 체험해야만하며 이러한 감정의 분출을 견뎌낼 수 있어야만 한다.”⁶³⁾ 이것은 남성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수의 남성들만이 성공한다. 그들은 여성의 분노와 비탄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가 그 자신 속에 있을 등가의 감정들을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이 자신의 감정들을 그 극한까지 체험하는 데 실패하면 그는 여성 원리를 자신의 인격 안에 통합할 수 없

61) Harding ME(1990) : 앞의 책, p153.

62) Harding ME(1990) : 앞의 책, p206.

63) Harding ME(1990) : 앞의 책, p203.

다. 그 결과 그는 전체로서의 자기 자신이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인 사랑의 관계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감정경험을 위해 자신을 포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⁶⁴⁾ 때문에 에로스애의 입문식은 모두를 위한 길로는 보이지 않는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신성혼은 매우 성적이며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의식이다. 이 의식은 인간과 사랑의 신들 간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 감정의 극한들을 향한 자아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그들은 심리적인 처녀성과 더불어 자신의 감정의 극한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을 획득해야한다. 그런 다음이라야 이 두 남녀는 상대방의 영혼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담아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어두움에 대한 강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 속에 있는 그리고 사랑 그 자체에 담긴 신의 무거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예로, 라스 폰 트리에의 다른 영화인 '멜랑콜리아'에서는 극 중 가장 낙관적인 인물인 존이 지구의 종말을 직면하자 가장 먼저 자살을 택한다. 이에 반해 중증 멜랑콜리아를 앓고 있는 인물인 저스틴은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로하고 침착하게 이 어두운 운명을 직시한다. 멜랑콜리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그리고 인간의 어둠을 아는 자들이다.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원시적 신성혼의 입문식과 유비되는 에로티즘의 입문식에 가장 적합한 인물일 수 있는 것이다.

신성혼과 에로티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신성으로서의 에로스 간의 결합이다. 이 결합에서 역설적으로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 모른다. 그 본성상 거대한 결합은 거대한 고독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로스를 최우선으로 두는 심리적인 처녀성을 획득한 사람은 '신과 함께 홀로임'인 존재의 상태에 처한 것이며, 이는 인간적 차원에서 상당히 고독한 삶일 수 있다. 릴케는 사랑과 고독에 대해 다음의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오래, 가장 멀리 삶으로 간다는 것이다 : 고독, 사랑하고 있는 자 스스로의 고양되고 깊어진 홀로인 상태, (중략), 사랑은 숭고한 작업이며 성숙한 개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부로 성장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의 세계가 되어 준다는 것을 뜻한다."⁶⁵⁾ 이 표현은 연금술 작업에서 요구되는 인내를 연상하게 한다. 작업(opus)에 완전하게 헌신하는 연금술사만이 라피

64) Harding ME(1990) : 앞의 책, p210.

65) Rilke RM(2012) : *Letters to a Young Poet*. Loc 501, Kindle Edition.

스를 얻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다.

사랑이라는 행위에 대한 릴케의 생각은 에로티시즘을 통한 개성화 과정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의 과제는 ‘그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의 세계가 되어 주는 것’이며 ‘그 자신이 하나의 세계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의 독립적인 세계가 된다는 것은 개성화과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화와 사랑은 분리된 과정이 아닌 것이다. : 사랑할 때 우리는 개성화된 다. 사랑하는 연인이 없이, 우리는 우리 안의 잠재된 것, 꽃 피기를 기다리는 그 씨앗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사랑하는 대상은 늘 우리의 잠재된 것들을, 전체성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오한 사랑의 체험은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든다. 따라서 연인은 우리가 전체적인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존재이다. 자연스레 이 사랑은 사랑의 상실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일으킨다. 나를 전체로 만들어 줄 사람이 이 우주에서 오직 단 한사람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상실의 가능성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 특정한 육체, 이 특정한 영혼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으며, 이러한 사랑에는 어떤 쉬운 해결책도, 어떤 매뉴얼도, 어떤 구명보트도 없다. 이 지점에서 사랑하는 대상은 아름답지만 무서운 미로가 되며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피하거나 생명을 걸고 이 불확실성으로 들어가거나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것에 삶을 건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독을 만든다. 에로티시즘은 결국 이러한 고독과 더불어, 연인이 우리를 위해 가져온 우리의 잠재적인 것들을 통합하는 외로운 작업 속에서 무르익는다.

2) ‘아모르와 프쉬케’ : 에로스를 통한 자기실현

에로스를 통한 개성화의 길을 가는 인물을 보여준 ‘히로시마, 내 사랑’외에도, 아폴레이우스가 기술한 민담인 ‘아모르와 프쉬케’⁶⁶⁾ 역시 프쉬케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통해 자기실현에 이르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민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쉬케는 신성한 아름다움을 가진 공주로 여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보다 그녀를 더 섬기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아프로디테는 아들 아모르에게 프쉬케가 인간가운데 최악의 남자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녀를 파괴하라고 명령한다. 신탁은 그녀가 ‘죽음의 혼례’를 치를 운명임을 알린다. 그러나 그 자신의

66) Neumann E/최연숙 역(2012) : 《아모르와 프쉬케》, 영남대학교 출판부.

도구인 사랑의 화살에 찰려 그녀와 사랑에 빠진 아모르에 의해 프쉬케는 구출되고 비가시적인 남편인 아모르의 신부가 된다. 황홀경의 신혼생활을 보내던 프쉬케는 남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언니들의 유혹에 빠져 그가 야수라고 믿고 살해를 결심한다. 그녀는 이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램프의 빛을 통해 그를 비로소 보게 된다. 이때 그녀 또한 아모르의 화살에 실수로 찰림으로써 그와 격정적인 사랑에 다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아모르는 그녀를 원망하며 떠나고 버림받은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찾아 헤맨다.

아프로디테에 의해 발각된 프쉬케는 이 여신으로부터 네 개의 과제를 강요당한다. 아모르를 잃은 절망 속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그녀의 시도들이 번번이 좌절되는 와중에 그녀는 개미, 갈대, 독수리와 탐의 도움으로 각각의 과제를 수행한다. 그 과제들은 곡식의 분류, 황금양털을 가져오는 것, 샘물을 크리스탈 용기에 담아 오는 것, 그리고 지하여신의 아름다움을 얻어서 상자에 넣어 가지고 오는 것 등이다. 마지막 과제를 거의 완수할 무렵 그녀는 남편 아모르의 사랑을 받고자 상자속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그 결과 깊은 잠에 빠진다. 이때 아모르가 나타나 그녀의 잠을 깨우고 과제는 완수된다. 이후 주피터의 주관으로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 둘 사이에서 ‘쾌락’이라는 이름의 딸이 태어난다.

주인공 프쉬케의 자기실현 과정은 사랑을 통한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프로디테를 능가하는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새로운 사랑원리의 가능성을 가진 인물임을 암시한다. 자연원리이자 향유와 도취를 통한 다산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아프로디테의 사랑원리는 비개인적인 집단성이 그 특징인데 반하여, 프쉬케는 무의식성을 극복하고 사랑의 대상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에로스의 원리, 즉 개인성에 뿌리를 둔 비 집단적인 사랑의 원리를 대표한다. 그녀는 고통과 이별을 포함한 사랑의 모든 고난을 의식성을 가지고 수용함으로써 개성화의 과정을 밟는다.

사랑을 통한 프쉬케의 개성화 과정은 모든 개성화 과정이 그러하듯 자기가 주관한다. 본 민담에서도 에로스가 그녀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는 것으로 그려져 그녀의 자기실현의 여정이 신성에 의해 주도되고 촉발됨을 보여준다. 그녀의 사랑은 원형에 사로잡힌 상태로 시작된다. 이 단계는 우로보로스적인 낙원의 상태로, 신비적 참여가 지배적인 무의식성이 특징이다. 여기서

프쉬케와 아모르는 어둠 속에서 결합하여 황홀과 도취의 순간만을 가지는데, 이는 낙원이자 혼돈이기도한 강렬한 뒤섞임으로 특징 지워지는 무의식성이 지배하는 사랑의 단계이다. 즉, 아모르 신과의 어둠속의 결합은 무의식성의 상태에서 사랑의 원형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한다. 일상의 사건으로 비추어보면 강력한 아나미, 아니무스 투사가 압도하는 사랑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압도감과 도취가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어둠에 갇힌 천국 상태의 사랑의 단계에서 두 연인은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익명이며 개인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성에 도달할 수 없다. 진정한 관계는 두 의식 사이에서만 일어나며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데, 투사가 지배하는 관계에서는 뒤섞임의 무의식성이 지배하고 이로 인해 연인들은 서로에게 아직 비개인이고 익명이다.

이야기의 다음 단계에서 프쉬케는 뱀의 유혹에 굴복한 이브처럼 의식화를 향한 죄를 짓는다. 언니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를 야수로 오인하고 살해하려는 과정에서 그녀는 램프로 상징되는 ‘의식의 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보게’되고 더욱더 격렬한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비로소 얼굴로 상징되는 개인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게 되어 남성과 개별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관계로 진입한다. 대상의 본질을 진정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그 대상에 매혹되는 것이다. 즉, 아니무스 투사를 거두어들인 후 드러난 연인 고유의 본질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랑의 역량을 발달시킨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앞서 인용한 융의 에로스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는 에로스의 전부는 아니나 또한 결코 배제될 수 없는 본질적 요소다. 정신 스펙트럼에서 육체와 영성은 대극이지만 또한 극도로 가까이에 있다. 마음과 육체를 가르고 위계를 부여하며 하나를 다른 하나에 대한 초극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서 오랜 시간동안 성의 억압과 육체의 억압, 즉 여성성의 억압이 일어났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사랑을 통한 개성화과정에 있어서도 섹슈얼리티는 초극되어야할 열등한 것이 아니며 영원히 죽음과 재탄생을 뒤풀이하는 달처럼 인간의 의식과 체험을 통해 영원히 향유되고 살아가며 통합되어야 하는 삶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사랑을 아는 여성으로서 프쉬케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제가 수백 번 죽어도 당신과의 동침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제 죽음과 맞바꿀 만큼 사랑해요.”⁶⁷⁾ 새로운 에로스

원리의 대리자로 거듭 태어날 심혼답게 그녀는 정신과 육체를 결코 분리시키지 않는다.

프쉬케는 이브처럼 인식의 죄를 범함으로써 우로보로스적인 무의식의 낙원에서 추방된다. 그녀와 아모르는 서로 상처를 입히면서 무의식적인 동일성의 붕괴를 겪으며 궁극엔 개인성에 기반을 둔 사랑에 도달한다. 그녀가 에로스의 누미노즘을 경험한 순간은 자신과 연인의 개인성의 의식화에 이어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인(표면상으로는 우연으로 묘사된) 사랑의 화살에 찔린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체험의 특질인 극도의 격렬함 때문에 고대의 신들조차 두려워했던 에로스의 체험 말이다. 이러한 신성의 파고들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소는 자아의 의도가 배제된 신의 의도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통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격정적으로 자기를 체험한 프쉬케는 이제 ‘신을 아는’ 존재로 변환된다. 그녀는 이제 사랑의 여정에서 본격적인 개성화의 과정으로 접어들다. 에로스원형에 내재한 자기의 체험자인 그녀는 이 에로스에게서 버림받는 비참한 운명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아모르로부터 버림받은 프쉬케는 멜랑콜리아의 어둠으로 빨려 들어간다. 서구 정신사의 오랜 인문학적 전통 속에 살아 숨 쉬는 멜랑콜리아 담론은 현대에 이르러 편협하고 창백한 의학적 개념인 ‘디프레션’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멜랑콜리아 담론은 죽을 운명인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정서적인 자각과 이에 상응하는 영원성에 대한 동경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현대의 실존주의와도 맞닿아 있는 역사 깊은 광의의 개념이다. 뒤러의 우울한 천사를 연상시키는 프쉬케는 자살충동을 지닌 격정적인 인물로 ‘죽음의 결혼식’비를 기꺼이 감수하려한다. 그녀는 이후에도 여러 번 자살의 경향성을 내비친다. 멜랑콜릭하고 격렬한 프쉬케는 사랑의 성향이 농후한 판 신으로부터 아모르에 헌신하라는 조언을 받고 자살시도를 멈추고 고통을 감내하며 위대한 사랑의 여정에 오른다.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아를 희생하는 것으로 자기실현의 여정을 감행하는 여성영웅인 그녀를 아프로디테는 “당당하고 영리한 마녀”라고 명명한다. 노이만은 여성영웅의 여정이 남성영웅의 여정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투쟁을 통해 아니마와의 신 성혼을 이루는 남성영웅의 개성화 여정과 달리 여성영웅은 운명적인 희생을 감행하고 고통과 이별을 감수하며 사랑자체를 추

67) Neumann E/최연숙 역(2012) : 앞의 책, p23.

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실현에 이르는 여정을 밟는다고 보았다.⁶⁸⁾

아프로디테로부터 주어진 네 개의 개성화의 과제를 그녀는 내면의 본능과 접촉하며 풀어간다. 그녀는 대담함과 출중한 영리함을 가지고, 직접적인 투쟁이라는 남성영웅의 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과제를 완수한다. 아마도 이쯤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자살 경향성을 극복하면서까지 힘겹게 사랑을 추구하게 만들었을까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녀가 에로스를 통해 자기를 체험한 인물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자신이 상실한 대상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지식이 아닌 감정적인 체험을 통해 진정으로 알고 있다. 둘째는 그녀가 멜랑콜리아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기질이 암시하는 감정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멜랑콜리아의 경향성은 실존에 대한 예리한 자각에 따른 영원성에 대한 감수성 및 강력한 동경을 낳는다. 때문에 그것의 최종 담지자인 자기를 추구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는 그녀가 에로틱 퍼스낼리티의 소유자라는 데 있다. 그녀는 사랑의 능력으로 대표되는 여성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녀에겐 예수가 경멸한 영혼의 미지근함이 없다. 그녀는 자아를 희생시킬 수 있는 역량인 열정을 인격의 핵심에 가지고 있다.

에로스를 통한 개성화는 에로스의 본질 상 영원히 여성적인 것과의 만남이 핵심이다. 아프로디테가 부과한 세 가지의 과제를 완수한 후 마지막 과제를 마치기 직전 대담한 프쉬케는 다시 한 번 금기를 어기고 그 벌로 잠에 빠진다. 노이만은 여기서 그녀에게 중요한 변환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며 바로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다.”⁶⁹⁾고 보았다. 프쉬케의 네 번째 과제는 지하계의 여신이 준 아름다움이 든 상자를 열지 말고 지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아모르의 마음에 들기 위해 금기를 어긴다. 그녀의 개성화의 시작이 남성의 원리인 ‘램프의 빛’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녀가 로고스 원리인 인식보다 여성적 가치인 아름다움에 더 큰 중요성을 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본성속의 여성성과 새롭게 결합한다. : “아름다움 모티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프쉬케가 새로운 아프로디테로 불리어왔고, 사람들이 승배의 대상으로 열광하는 바람에 드디어 여신의 질투를 샀을 때,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불운으로 여겼다. 그리

68) Neumann E/최연숙 역(2012) : 앞의 책, p103.

69) Neumann E/최연숙 역(2012) : 앞의 책, p146.

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고양시킬 마음을 먹고, 스스로에게 크나큰 불행이 될지도 모르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프쉬케는 아모르를 위해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적 인식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⁷⁰⁾ 그녀는 사랑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아의 안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물로 변환한 것이다. 그녀는 사랑의 대상을 위해 이성을 불신하고 자신 내부의 에로스의 원리를 따른다. 이렇듯 고양된 여성성은 남편인 아모르를 유혹하며 그와의 진정한 혼례로 이끈다. 온전한 남성성이 연인의 여성성을 불러일으키듯, 온전한 여성성 역시 온전한 남성성을 삶의 전면으로 이끌어 낸다. 그리고 이러한 에로스를 통한 개성화의 과정의 결과 신적인 아이가 탄생한다. 에로스를 통한 개성화의 산물인 “쾌락”이라는 이름의 라피스는 사랑을 통한 개성화의 길이 에로티시즘의 금욕적인 초극에 있지 않으며 성애가 이러한 형태의 자기 실현과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쾌락과 환희는 정신과 육체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자 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3) 불멸의 무상성

“영원한 충만을 창조하길 원하는 사람은 영원한 공허 역시 창조하게 될 것이다.”

영원성은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속 천사들처럼 인간에게 경외감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동경에 갇힌 연인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 이것을 움켜쥐려고 하나 에로스의 그림자는 그를 소진시킨다. 그는 사랑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불멸의 느낌이 지속할지 의심하며 괴로움에 빠진다. 자기(Self)처럼 에로스도 자신만의 그림자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 미사에서 신은 고통 받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을 창조한 데 대한 벌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작가 파스칼 키냐르는 그러한 연인들의 고뇌와 더불어 에로스의 고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연인들은 서로의 몸을 움켜잡는다. 자신들의 침을 섞는다. 입술을 치아로 누르고 상대의 숨을 깊숙이 빨아들인다. 하지만 모든 것은 헛되다. 그들

70) Neumann E/최연숙 역(2012) : 앞의 책, p147.

은 결코 서로의 몸으로부터 작은 조각도 빼앗을 수 없다. 서로의 몸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잠길 수도, 서로의 몸을 관통해 완전히 들어갈 수도 없다. 잠깐 동안 폭력적인 열정이 수그러든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자신들이 동경하는 것을 찾는 여정에 오른다. 다시 한 번, 그들은 그들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한다. 눈멀고 길을 잃은 채, 그들은 은밀한 상처를 간직한 채 열망한다.”⁷¹⁾ 우리는 영원성을, 자기의 숨결을, 삶의 의미를 연인을 향해 투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얼마나 사랑하든지간에 사랑하는 대상과 완전히 결합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늘 비밀스레 괴로워할지 모른다. 이것은 에로스의 본질이자, ‘히로시마, 내 사랑’의 주인공을 괴롭힌 바로 그것이다. 이 영화에서 덧없는 사랑의 본질은 망각의 형태로 주인공을 압도한다. 그녀의 고뇌의 본질은 자신을 거의 죽일 뻔 했던 운명적인 사랑조차 잊혀 질 수 있는 있음을 자각하는 데 있다.

그녀 : “나는 나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밤 이 이방인과 당신을 배반했어요.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당신이었어요. 내가 들었을 그 이야기는.

십 사년 동안 나는 찾지 못했었죠, 불가능한 사랑의 그 맛을

느베르 이후 오늘 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어가는 지 봐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망각해 가지는 지 지켜봐요...

나를 봐요.”

히로시마에서 일본인과 사랑에 빠질 때, 주인공은 공포 속에서 그리고 완전한 의식성을 가지고 사랑의 본질인 망각과 직면한다. 모든 자각은 본질적으로 의식에게는 상처다. 주인공은 사랑의 불완전함에, 에로스의 그림자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어떻게 사랑이 그 자체로 살아남고 계속되는 지에 대해 매혹된다. 사랑은 필멸이면서 동시에 불멸인 것이다. 사랑의 이러한 역설적 속성처럼, 모든 역설은 두려움을 준다. 이는 그것이 이성에 대한 우리의 환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단지 견딜 수

71) Quignard P(2011) : 앞의 책, p46.

있을 뿐이다.

용의 다음의 말처럼 에로티시즘을 통해 영원을 추구하는 연인이 수용해야만 하는 것은 존재의 비-영원성이다. “우리는 (둘 중) 다른 한쪽을 제외하고 한 면만 떠안을 수는 없다.”⁷²⁾ 우리는 가톨릭 미사의 상징과 에로티시즘 간의 유비를 통해 사랑의 불완전함이 에로스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가정을 살펴보았다. 영원을 향한 동경에 끝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영속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체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무엇으로도 완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진 채 이 과정의 어딘가 썸에서 헤맨다. 이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끔찍한 불가사의이다. 그는 이 영원을 잡아채서 사랑을 통해 그것을 자신의 육체와 영혼에 가득히 스며들도록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건 자이기 때문이다.

에로스의 이 역설은 달의 본질과 깊이 닿아있다. ‘여성의 신비’라는 책에서 하딩은 여성적 원리이자 달의 여신이며 사랑의 여신인 달과 에로스 사이의 유사성을 증명하였다. 에로스로서의 달은 고유의 역설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불멸을 안겨준다. : “그러나 달이 약속한 영원성은 황금도시의 끝나지 않는 삶이 아니다. 이 도시는 밤이 없고, 모든 것이 영원히 끝없이 완전히 드러나고 달빛에 적셔지는 곳이다. 달이 약속한 불멸은 이와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완벽한 상태의 영속성이 아니라, 달 자신처럼 끝없이 새로워지는 삶이다. 그 안에서 찾아들고 죽어가는 것은 곧 새로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다.”⁷³⁾ 불멸이라는 에로스의 선물은 오직 영원불멸하는 무상성이라는 역설을 건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일지 모른다.

노자는 천지불인(天地不仁)을 통해 자연이 어질지 않으며 인간사에 무심함을 주장하였고, 용 역시 인간의 내적자연인 무의식이 인간의 고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내적 자연으로서의 에로스 역시 인간에게 인자하지 않으며, 이것이 에로스의 어두운 면으로 체험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외적 자연처럼 우리의 내적 자연 역시 자아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에로스는 두 연인의 사랑이 지속할 지에 대해 궤념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가 인간으로 육화하길

72) Jung CG(2009) : 앞의 책, p316.

73) Harding ME(1990) : 앞의 책, p212.

원하듯 에로스가 주목하는 것 역시 인간을 통한 에로스 자신이기도 한 자기의 실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통해 에로스를 살아낼 수 있는 한 그것은 사랑의 영속성과 생명의 불멸성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신성혼의 기저에 놓인 원리이며 개성화 과정의 원리이기도 하다. 인간은 에로스 앞에서 반드시 자아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랑이 자아를 섬기게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실로 무거운 과제인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자아 중심적 태도를 죽일 수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신이 자비롭고 사랑만을 가진 존재라고 믿고 자하는 순진성을 희생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과 욕망의 영속성은 에로스의 요구에 각 연인이 얼마나 헌신하는 지에 달려있을지 모른다. 우리 안의 사랑의 여신은 그녀 자신이 우리를 통해 꽃 피고, 비옥해지고, 자신의 에로틱한 잠재성을 완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두 연인간의 사랑은 그들 각자의 자아가 그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끝날 것이다. 이리하여 연인들은 삶과 사랑의 덧없는 본성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은 에로스가 아니라 두 연인이 서로에게 가졌던 욕망이다. 사랑의 경향성은 영원히 살아남아 우리 내부에 있는 에로스의 잠재력을 운반할 대상을 기다린다. 우리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사랑에 빠진다. 우리가 그녀와 관계 속에 있는 한 에로스는 불멸하지만 대상을 향한 사랑은 죽을 운명일지 모른다. 이는 영원히 변하는, 영원히 죽고 태어나는 달의 본질을 반영한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 번 사라진 욕망은 다시 불붙지 않는다. 우리는 이 덧없음에 상처를 받고 에로스 역시 이에 고통 받는다. 우리는 욕망의 영속성을 희구하지만 영원은 신 고유의 소유물로 인간은 이를 소유할 수 없다. 우리는 에로스가 무엇을 원하지는 지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에로스는 인자하지 않으며 자아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상위의 원리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이 여성적 원리에 자아를 맞추려 노력하는 것 뿐 일지 모른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모든 사람이 에로스로의 입문식을 향한 운명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많은 이들이 에로스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이것은 대부분 미지근한 삶의 태도 때문이고 우리들 대다수는 미지근하며 그리고 신은 이 미지근함을 경멸한다. 아마도 우리 중 가장 불행한 자가 에로스에 의해 구원을 받을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자 일지

도 모르겠다. 왜냐면 가장 불운한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구원을 원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의 물에 대한 동경 때문에 가장 불행한 자가 사랑의 신을 유혹한다. 신의 욕망은 언제나 변환에 선재하므로, 사랑의 신에 대한 동경이 에로스를 초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주는 무서움을 견딜 수 있는 자들만이 이 사랑의 여신에게 입문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혹자는 유혹의 대상이 욕망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한다. 에로스는 우리의 궁극의 동경, 자아의 완전한 행복,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그녀는 자신의 매혹적인 에로티시즘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내적 체계를 해체하고자하고 자아에 대해 최고 우위의 자리를 갖고자 한다. 우리는 그녀의 유혹으로 인해 이전에 자신에게 결핍되어 온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와 더불어 고통 받을 역량을 가진 존재로 변환한다. 그리고 그녀가 떠남과 더불어 우리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심연으로 떨어진다. 이 사건은 그녀에 대한 동경의 씨를, 그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열정의 씨를 우리 영혼에 심는다. 이로써 우리는 에로스에게 입문식을 할 정신적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나가는 말

본고는 용의 레드북에 나온 “그리스도가 정신을 통해 육체를 고문했듯이, 이 시대의 신은 육체를 통해 정신을 고문할 것이다.”라는 구절에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새로운 형태의 고문이 개성화 과정의 한 방식으로서의 에로티시즘(혹은 성적인 돈이 강조된 에로스)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에로티시즘은 그 초월적 특징으로 인해 종교가 없는 현대인에게 존재의 연속성과 자기(Self)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얼마 남지 않는 통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고통당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자신의 육화를 위해 자궁으로써의 인간을 필요로 하는 신 역시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가정하였다. 즉, 신과 인간은 서로를 구원하는 관계이며, 구원받기 위해 서로를 유혹해야하는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안하였다.

누미노즘의 성격을 띠는 성애를 통해 에로스는 에로스 신 자신의 육화를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육화의 요구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인간을 유혹한

다. 이 신이 필요로 하는 인간은 사랑을 통해 신 자신의 핵심 속성인 영속성과 영원한 생명수를 욕망하는 인간이다. 욕망은 결핍을 의식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정감이다. 따라서 에로스의 유혹의 목적은 인간을 무의식성에서 깨워 신 자신을 추구하도록 만드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개성화로의 초대에 해당하며, 나는 이러한 형태의 신의 유혹을 “신의 에로티시즘”으로 명명하였다.

세상에는 신의 에로티시즘의 대상이자 개성화 과정으로써 에로티시즘을 살도록 운명 지워진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멜랑콜리아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이런 종류의 개성화과정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멜랑콜리아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 삶의 덧없음과 무상성에 대한 통렬한 자각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개인으로 하여금 에로티시즘을 통해 영원성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전제조건이 된다.

멜랑콜리아는 삶의 무상성에 대한 통렬한 자각 그 자체로써, 영원을 향한 갈망을 촉발한다. 이러한 영원을 향한 결핍감과 갈망, 그리고 이 갈망을 채워줄 신적 경험에 대한 약속은 깊은 에로티시즘에 존재하는 특징이다. 따라서 멜랑콜리아의 고통은 개성화의 여정으로서의 에로티시즘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지에 자각 없이는 그 누구도 결핍된 그것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이 결핍되어 있고 신은 인간이 결핍되어 있다. 인간과 신은 서로를 욕망하며 구원되기를 열망한다.

나는 에로스 입문식이 의미하는 것이 에로스를 유혹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제안하였다. 여성의 정신에서는 심리적인 처녀성이 자아가 획득해야 할 본질적인 태도이며, 남성의 경우 자신의 관능을 충분히 살아내고 그 자신과 연인의 감정을 그 극단까지 모두 경험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논하였다. 이런 자아의 태도는 에로스 에 대한 전적인 헌신 하에서만 가능하며 이로서 에로스를 자신 안에서 육화할 수 있다.

에로티시즘을 통해, 무의식은 우리를 유혹하여 전체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 사랑의 신은 “영적 위기”의 수단으로 강력한 에로티시즘을 삶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 우리의 미지근한 영혼을 파괴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 경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삶은 짐을 가슴에 품는 것이 요구되는, 그런 형태의 삶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Bachmann I/차경아 역(1997) : 《맨하탄의 선신》, 문예출판사.
- Byungchul H/김태환 역(2015) : 《에로스의 종말》, 문학과 지성사.
- Neumann E/최연숙 역(2012) : 《아모르와 프쉬케》, 영남대학교 출판부.
- Bataille G(1986) : *Eroticism : Death & Sensuality* : English Translation by Mary Dalwood, City Lights Books.
- Cowan L(2004) : *Portrait of the Blue Lady: The Character of Melancholy*. Spring Journal, Inc.
- Duras M(1961) : *Hiroshima, Mon Amour*, Translated by Richard Seaver, Grove Press, Inc.
- Edinger EF(1992) : *Ego and Archetype*, SHAMBHALA,
- Ficino M(1985) : *Commentary on Plato's the Symposium on Love*. English Translation by Sears Jayne, Spring Publications, Inc.
- Harding ME(1973) : *Psychic Energy: Its Source and Its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 *Woman's Mysteries : Ancient & Modern*. SHAMBHALA.
- Jung CG(1966) : *CW 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 edition.
- _____ (1968) :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2nd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69) : *CW 7,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G(1969)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Collected Work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5) : *Letters : 1951-1961*, ed. G. Adler, A. Jaffe, and R.F.C. Hul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vol. 2.
- _____ (1989) : *Memories, Dreams, Reflections*, ed. A. Jaffe, English Translation by Clara Winston & Richard Winston, Random House, Inc.
- _____ (2009) : *The Red Book-A Readers' Edition*. English Translation by Mark Kyburz, John Peck, and Sonu Shamdasani, W.W.Norton & Company.
- Kierkegaard S(2004) : *The Sickness unto Death*. English Translation by Alastair Hannay, Penguin Classics.
- Lorca FG(2010) : *In Search of Duende*. English Translation by Christopher Maurer, A New Directions Pearl.
- Qualls-Corbett N(1988) : *The Sacred Prostitute: Eternal Aspect of the Feminine*, INNER CITY BOOKS.

- Quignard P(2011) : *Sex and Terror*; English Translation by Chris Turner, Seagull Books.
- Rilke RM(2012) : *Letters to a Young Poet*. Kindle Edition.
- Ronnberg A(2010): *The Book of Symbols*. Taschen.
- Samuel A, Shorter B, Plaut F(2015) : *A Clinical Dictionary of Jungian Analysis*. Kindle Edition.
- Sanford JA(1982) : *Evil : The Shadow Side of Reality*.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2005) : The International Bible Society.
- The Nag Hammadi Library*. edited by Robinson, J.M. HarperOne(1990) ; Reprint edition, Gaspel of Thomas.
- Ulanov A(1972) : *The feminine in Jungian psychology and in Christian Theology*.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Wilson C(1987) : *The Outsider*. TarcherPerigee.
- Von Franz M-L(1993) : *The Feminine in Fairy Tales*. SHAMBHALA.

〈필름〉

- Hiroshima, Mon Amour*; Directed by Alain Renais, 1959.
- Melancholia*, Directed by Lars von Trier, 2011.
- Nymphomaniac*, Directed by Lars von Trier, 2013.
- Teorema*, directed by Pier Paolo Pasolini, 1968.
- Water Drops on Burning Rocks*, Written by Rainer Werner Fassbinder, Directed by Francois Ozon, 2000.

Shim-Sŏng Yŏn-Gu 2018, 33 : 1

〈ABSTRACT〉

Eros, Seduction for Redemption

Jeeyoun Kim, M.A.*

The paper was inspired by Jung's words in the Red Book "just as Christ tormented the flesh through the spirit, the God of this time will torment the spirit through the flesh." I propose that the new form of torment in this era could be eroticism as a way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because it seems to be one of a very few ways left to modern men to grasp the sense of permanence, the essence of the divine, without religion because of its peculiar nature of transcendence. I suppose that it is not only a man who is tortured but also god is in torment since the divine needs a man as a womb for his incarnation. Therefore I suggest that man and god are fated to seduce each other to be redeemed by each other.

I imagine that Eros with numinous sexuality seduces a man who has potentials for the god's incarnation and who would be willing to give in to the god's demand. This god needs a man who desires his essence of perpetuity, the eternal water of life, in ecstasy. Thus the purpose of the divine's seduction is to make a man awake from unconsciousness to pursue god himself, namely the individuation process. I call such divine seduction "eroticism of god"

There seem to be a certain type of people who are destined to live eroticism as a way of individuation process. Through investigations, a melancholic tendency appears to be suitable for this type of individuation. Melancholia is deeply related to the poignant awareness of impermanence as the existential condition, which is a precondition for seeking permanence through eroticism.

Melancholia essentially causes deep longing for eternity that bears fulfillment, which exists in eroticism, so melancholic agony seems inevitable for eroticism as the path for individuation in that, without knowing about deficiency, we never seek what is lacking in us. It can also be viewed that while a lover is

driven to seduce lost love, what actually waits to become seduced for redemption is the god of love itself behind the human beloved. Man and god are fated to seduce each other for redemption.

I suppose that the initiation to Eros implies how to seduce Eros. In a woman's psyche, psychological virginity is one of the essential qualities that her ego needs to attain. To the male it is vital to live his sensuality thoroughly and to experience his own and his lover's emotions to their limit. It cannot be an easy task because it demands us to give up our egotism entirely.

Through eroticism, unconsciousness seduces us to make us live life as a whole. The god of love brings powerful sexuality as a means of "spiritual crisis" to redeem our lukewarm soul. Only a few can withstand the experience since it requires a strong will to bear the brunt of the sword despite the keen awareness that it may leave us bleeding in pain.

KEY WORDS : Individuation · Eros · Melancholia · Seduction · Redemption.

**Jungian Analyst, Clinical Psychologist, Head of Jeeyoun Kim Jung Institute*